

## 윤석열 대통령, 군산조선소 선박블록 첫출항식 참석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10일 전북서 개최

###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약속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2.10일 오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블록 첫출항식'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후보시절 군산을 방문하여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으며, 군산조선소는 가동을 중단한 지 5년이 만인 지난해 10월, 예정된 약속(23년 1월)보다 더 일찍 조기 가동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

이날 행사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생산한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을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자,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약속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0년 3월 준공된 이래 연평균 1조원 규모, 연 최대 16척의 선박을 건조했으나,

2016년 글로벌 선박 시장의 수주절벽으로 인해 2017년 7월 가동을 중지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조선시황이 회복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가동 중지 5년 만에 재가동한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조선산업은 전 세계 발주량의 37%를 수주하여 2018년도 이후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수주에 있어서도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바 있다고 말하고, 현재 직면한 현장 생산인력 부족,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도전을 극복하고 향후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3년 1,4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을 관계 부처와 함



께 적극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북도민들에게 전했다.

군산조선소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함에 따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수/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경제수석 및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제안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지방안전·발굴·조정 역할 분담을 위한 지방자원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인구감소 지수를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에 포함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저출생·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게 된 것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진 종합토론에서 김 전북도지사

는 "인구증감과 관계없이 지역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잡·다양해진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구수 기준이 아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북도지사는 또 "6개 분야, 57개 과제에 대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혁신적인 방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입법이 추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북도지사는 이와 함께 "정부의 원전 비중 조정과 수출 주도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은 RE100 실현을 위한 국내 최초의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험산업단지 지정되어 있는 만큼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마지막으로 "오는 5월 개최되는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남출/기자

## 경북도, 새해에도 주한미군과 문화관광 교류 공고히 다져

### 물자지원사령부 신년연회에 부채춤, 국악 등 전통문화 공연 선보여

경북도는 새해에도 주한미군과 문화관광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캠프 캐럴(칠곡) 주한미군 물자지원사령부(USMSC-K) 주관으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3년 주한미군 신년연회에 참석하여 올 해 첫 교류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물자지원사령부 데니스 엘 쉘든(Dennis L. Sheldon) 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 및 가족, 군무원 등 400여 명과 칠곡군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경북도 관광마케팅과장 등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부채춤 공연과 국악공연 등 경북의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경북도는 2020년 8월 캠프 험프리

스(평택) 주한미군부인회와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대상 문화관광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주한미군부인회 12명이 세계유산축전을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주한미군 물자지원사령부 간 '우호교류 및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40명의 주한미군 관계자가 템플스테이 등 문화관광체험을 즐겼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문화관광 분야에서 더 나아가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 분야까지 주한미군 문화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국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수시로 소통하고 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경북이 한국 문화의 중심임을 알리고, 이 분들을 통해 경북의 멋과 맛을 세계로 많이 알려 외국인들이 경북에 많이 방문하게끔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이번 문화관광 분야에서 시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데에도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윤근수/기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cittaslow  
산소카페 청송군

피톤치드뽕뽕청보리청보리부농부농... 피톤치드뽕뽕청보리청보리부농부농

## 향기와 색깔의 향연, 산소카페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군은 이름 그대로 피톤치드 향이 뽕뽕 솟아나는 푸른솔의 고장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봄은 새파란 청보리의 물결이 바람소리를 내고,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가을은 백일홍의 아름다운 자태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사람이 아닌 자연을 마주하는 곳!  
힐링 명소, '산소카페 청송군'

※ 피톤치드 : 식물에서 분비되는 향균, 살균성을 띠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총칭.  
※ 부농 : 사람을 연상시키는 분홍색에서 유래된 SNS 용어. 달달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을 의미한다.



#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달항아리에 도민 행복 소원 담다

## 경북도의회, 새봄을 맞아 “더 나은 경북, 도민 행복”기원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은 새봄을 맞아 제33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달항아리와 차함에 도민 행복을 담은 경상북도의회 소원을 새겼다.

희망찬 새봄을 맞아 달항아리에 경북도의회 염원을 담아내는 행사는 특별하고 큰 의미가 있다.

이날 배한철 의장은 가로90cm, 세로90cm 크기의 보름달 모양의 백자, 달항아리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한글자, 한글자 힘차게 써 내려갔다.

경북도의회 의장단의 힘찬 필력에서 “더 나은 경북, 도민 행복”을 기원하는 의지를 되새기고, 함께 한 박영서 부의장과 박용선 부의장은 가로30cm, 세로30cm 크기의 차함에 뜻과 힘을 모았다.

한편, 배한철 의장은 지난 2월 1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나해는 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민선 8기의 시작과,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한 역사적인 해였다”며, “작년 우리는 농업과 산업,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경상북도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 노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경북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뜨거운 열



정과 굳은 각오로 도민들과 함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경기침체 등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 노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경북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뜨거운 열

정을 담은 각오로 도민들과 함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경기침체 등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 노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경북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뜨거운 열

정과 굳은 각오로 도민들과 함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경기침체 등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 노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경북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뜨거운 열

정을 담은 각오로 도민들과 함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경기침체 등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 노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경북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뜨거운 열

윤근수/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충남도에 들어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고려해 지어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난관리를 위한 예방과 대응 등의 관리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이에 도의회는 9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342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충남도가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 및 교육, 훈련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문광위 546억 증액은 도민의 명령!

## 23년 업무보고서 신규사업 차질없는 사업 집행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8일과 9일 2일간 2023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관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틀간 진행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하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기반 조성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상 속에서 함께 누리는 예술생태계 구현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활성화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 조성 ▲도민이 행복한 경기관광 구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현안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지며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본예산 심의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대비 546억 증액된 5,625억원으로 통과됐다”며, “546억 증액은 도민의 명령이므로 예산 불용률 최소화를 목표로 면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경기체육의 위상을 위하여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지원 사업’

279억원, ‘스포츠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도민 건강 걷기 앱 개발’ 9억원, E스포츠대회 1억3천5백만원 등 신규 증액에 힘썼다.

또한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 및 운영비와 장애인 가맹단체 전무이사 활동비 및 운영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경기도 체육회 홍보비 2억원·원로체육인회 1천7백만원, 코로나19 이후 원활한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공모사업 39억원, 스포츠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9억원,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 정책연구용역 4천5백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2억원 증액 등 체육 분야 예산 총 350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 김정옥 의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1인 자영업자 납부고용료30%, 산재보험료 기준보수 등급 30~50% 환급
-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해 적극적인 사업추진 기반 다져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구지역의 1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시 생계유지에 도움 될 고용보험료 및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사업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일(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김정옥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생겼다 사라지는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보면서, 올해 경제전망치는 더욱 나쁘고 각종 물가는 상승하는데 진짜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살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내 1인 자영업자들은 경제난에 가계를 유지할 동력이 매우 부족해 폐업 시 생계유지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시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서는 전액 고용·산재보험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어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이 자발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전액 자부담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역의 약 1,300명 1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 시 실업

급여를 지원받도록 고용보험료와 업무상 재해 보험 보상을 산재보험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확고히 했다. 조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소상공인들

# 강원도의회 인사특위, 도립대 총장 후보 검증 나서!

강원도의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최재석(동해))’는 2월 14 10시 회의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총장 후보자(김광래, 현 가톨릭관동대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전찬환 현 강원도립대 총장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에는 12명의 위원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 준비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정책지원관이 6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특위위원 12명과 정책지원관 12명이 일대일로 호흡을 맞춰 준비하고 있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 첫 임시회가 진행 중인 터라 인사특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동시에 인사특별위원회 활동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인사청문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질의사항을 추려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재석 위원장(동해)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강원도립대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에서, 학교를 이끌게 될 신입 총장의 능력과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질은 물론이고 도립대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의 유무에 대하여도 철저히 검증할 생각이다”라며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월 14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월 16일에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튀르키예 대사관 방문 해 위로와 도움의 손길 건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10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대사관을 방문해 수원시와 협력해 마련한 긴급구호금 10만달러(1억2600만원)를 전달했다.

긴급구호금은 시 예비비 중 일부로 마련했으며, 형제나라 튀르키예가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건의에 따라 김기정 의장이 이재준 시장에게 지원을 위한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수원시는 1999년 튀르키예 알로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형제



국가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공직자들 또한 십시일반 구호품과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 의장은 “6.25 때 우리나라 전 쟁고아를 품어준 형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튀르키예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년창업에 날개 다는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 청년창업기업 5팀 선발해 각 팀당 최대 2천만 원 자금 지원...3월 3일까지 신청

송파구가 '2023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청년창업기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창업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파구만의 차별화된 청년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은 협약 이후 디자인혁신유망기업에 선정되며 유럽 5개국 기술 특허 등록의 쾌거를 이뤄냈으며, 이외의 기업들도 협약 전후 동월 대비 매출액 90% 상승, 사업기간 중 정규직 직원 추가채용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구는 올해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 5개팀을 선발해 팀 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ICT, APP, 플랫폼개발,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메타버스를 사업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이 심사

대상이다.

송파구 소재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기업) 또는 송파구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팀)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39세 이하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송파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살펴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창의성, 고용효과 등을 평가하고, 2차 대면심사에서 참여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송파구와 협약을 맺고 11월까지 지원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2월에는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발표회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가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스스로 기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꿈이 빛나는 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 용인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따뜻한 복지 실현해주길”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결의대회서 참가자 격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위기에 처한 이웃이 도움을 받지 못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한숙희)가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헌신적 활동 덕분에 용인이 살기 좋은 따뜻한 도시가 됐다.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경의를 표했다.

이 시장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절 인도의 평화운동가 비노바 바베는 땅이 많은 지주에게 토지 헌납운동에 동참하도록 해 가난한 이가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노바 바베의 ‘사랑의 힘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책 제목처럼 이 자리에 참석한 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주시길 바란다. 어려운 시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저



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한 위원장의 결의문 선언으로 시작해 읍면동 대표 3명의 다짐문 낭독에 이어 모든 참가자들이 ‘이웃에게 먼저 다가와 밝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는 의미의 하트모양 등불을 밝히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세상 밖으로 한 걸음씩 나올 수 있도록 총출동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3명의 시민에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

촉장을 전달했다. 집배원이나 소방관, 공인중개사, 편의점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은 생활 가까이에서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관찰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용인시에는 1682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며 올해 3000명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주민주도 마을복지사업과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노력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 “기업 성장 위해 전문·체계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

## 안양시·안양산업진흥원, 2023년 안양기업 CEO 신년 교류회 개최

안양시는 지난 9일 안양산업진흥원 9층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안양기업 CEO 신년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기업과 함께 비상하는 안양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창업과 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기업지원사업 총괄 안내 ▲업드림코리아(대표 이지웅)의 ‘미래 산업 트렌드 공유 및 성공하는 기업가 마인드’ 특강 ▲김정우 前 조달청장의 혁신조달 정책 안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참석자 간 기술 교류 및 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진흥원은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이 다양한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 강화 ▲공급 및 판로확대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청년창업펀드 2호 결성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을 기업인들에게 소개했다.

신유용/기자

# ‘더 나은 미래 100년, 함께 키우는 광명’...시민과 함께 완성한 민선8기 113개 공약 이행 순항 중

## 시민과 함께 완성한 민선8기 3대 전략, 16개 과제, 113개 실천 사업 추진 순항

광명시는 민선8기 ▲3대 전략 ▲16대 시정과제 ▲113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공약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현재 어려운 민생경제, 기후재난 문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에 수렴된 민선8기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더 나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사람과 미래를 키우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민선8기 광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시정혁신기획단과 논의를 거쳐 민선8기 비전과 공약을 확정했으며,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해 5대 공약과 시민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

혁신하는 시장 ▲함께 뛰는 정부 ▲미래를 키우는 광명의 3대 전략과 16개 과제, 113개 공약실천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혁신하는 시장’ 실현을 위해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시대 ▲신뢰받고 혁신하는 조직 ▲소통하는 시장, 열린 지방정부 등 3개 과제에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함께 실천하는 인권도시’ ▲동장공모제 시범사업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이주원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공간 조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 11개 실천사업을 추진한다.

‘함께 뛰는 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양질의 공공일자리 및 일자리 지원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쉽고 있는 정원도시 등 7개 과제에 5,2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자영업자 등 지원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설립 ▲광명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시설 확대 ▲감염병대응센터 설립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설립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안양천 경기도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지정 추진 등 54개 실천사업을 추진한다.

‘미래를 키우는 광명’ 실현을 위해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여는 교육도시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도시 ▲4차 산업 강소기업 유치 ▲빠르고 안전한 교통복지 실현 등 6개 과제에 6,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주택 공급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 ▲디지털교육지원센터 설립 ▲광명시민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산업진흥원 설립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 수도 조성 ▲사통팔달 철도노선 유치 등 48개 실천사업을 추진한다.

윤용민/기자

# 안성시, 2022학년도 초등학교학력인정 문해교육학습자 졸업식 개최

안성시는 2월 10일에 안성시평생학습관에서 2022학년도 초등학교학력인정 문해교육학습자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 김보라 안성시장, 김진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여했으며 축하공연, ‘우리가 걸어온 길’ 동영상 시청, 학위이수증 및 졸업장 수여, 내일아트 체험과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졸업생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학력인정과정은 성인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를 이수했을 경우 의무교육 수료가 가능하며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이 검정고시 없이 초등학교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교육이다.

안성시평생학습관은 2019년 안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초등학교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성인문해교육 1단계(1~2학년), 2단계(3~4학년), 3단계(5~6학년)를 운영했으며,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3단계를 최종 이수해 초등학교학력을 취득한 14명이 영예의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의 평균 연령은 78세 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결코 만만치 않은 기간 동안 한결같이 배움에 대한 진심으로 초등학교학력인정 졸업이 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학

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보여주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시민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와 발전방향 모색 위한 정담회 열어

## 임태희 교육감, 청소년단체가 학생 인성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10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을 비롯한 도내 청소년단체장 10여 명이 참

석했으며, 도교육청과 청소년단체가 함께 미래 청소년교육을 고민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학교 밖 공유학교를 통해 청소년단

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겠다”라며 “제일 중요한 인성교육과 지역교육협력을 통한 보완, 체험의 역할을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혜영/기자

# 이천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3년 지원사업 본격 스타트!

이천시는 우수한 상품 및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해외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지원사업의 모집공고 가 모두 2월 10일부터 시작되어,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은 2월 24일까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사업은 2월 28일까지 각각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천시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5

월 23일 ~ 5월 27일, 5일간 개최되는 ‘2023 태국 식품 전시회(원명 Thairif Anuga)’에 참가할 관내기업 6개사를 모집하여 이천시 단체관의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참가업체는 전시회장 임차료 및 부스장치비 80%, 전시품 편도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천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동남아(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국(뉴욕, LA), 대양주(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장을 목표로 시장개척단을 연간 3회 운영할 예정으로, 파격적

역에 따라 공모시기가 달랐던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이번 공모에 일괄적 신청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사업의 참가업체는 현지 상담장 및 차량임차료, 통역(기업당 1인), 바이어섭외 및 상담주선, 50% 항공료(1인당)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천시는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채택해 해외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성용/기자

# 강화군, ‘사랑 나눔을 위한 작은 용기’ 헌혈캠페인 진행

## 혈액 수급 위기 극복, 문화상품권 지급

강화군은 지난 10일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강화소방서에서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한파로 헌혈자가 급감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1월 비에스종합병원을 시작

으로 시설관리공단, 군청, 소방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군민과 공무원 등 총 104명이 동참하여 생명존중과 사랑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올해부터는 헌혈 장려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1인당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며, 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를 통해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된다.

또한, 헌혈 시 현장에서 간 기능 및 B형과 C형간염바이러스 등 11종의 혈액 관련 검사를 진행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헌혈 캠페인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개통 전 현장 점검

## 정명근 화성시장 “단절됐던 동탄1, 2 신도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정명근 화성시장이 9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개통 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정 시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병은 부장으로부터 사업과정 브리핑을 들은 뒤 지하차도 입구와 내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언론 인터뷰도 진행했다.

정 시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개통의 의미에 대해 “단절됐던 동탄1, 2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경부고속도로 50여년 역사에서 지하화 구간은 최초로 서울 방향 구간은 3월, 부산 방향 구간은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동·서간 도시 연결로 비로소 동탄 신도시가 완성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직선화 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시



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며 “시민이 편하게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자연과 문화, 레저가 복합된 랜드마크 공원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부터 영천동까지

4.7km 구간의 경부고속도로 직선화하는 사업으로 직선화 상부에 93,995㎡(공원 60,297㎡, 광역환승시설 29,673㎡ 등)의 공원을 조성해 화성 동탄의 동서간 단절을 최소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 효율적인 도시 기능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양시현/기자

# 수원시,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 비전 논의



수원시는 9일 일월수목원 강당에서 ‘2023년 도시공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수원시 도시공원의 비전을 논의했다.

수원특례시, 도시공원 향후 10년의 비전을 말한다.

그대의 삶을 빛나게 하는 공원’을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시민 40명과 전문가, 수원시의회의원 등이 참여해 ‘수원시 도시공원 10년의 비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회는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의 인사말, ‘수원시 도시공원 10년의 비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한 최재균 공원관리과장의 발제, 모듬별(5개) 토론으로 이어졌다.

최재균 공원관리과장은 수원시 도

시공원의 현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재정 악화와 슬럼화 ▲신·구 도심지 불균형 ▲수요자 중심 정책 미흡 ▲시민 참여사업 부족 등을 제시하고, ‘도시공원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그대의 삶을 빛나게 하는 공원’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도시공원 발전계획은 ‘도시 균형발전’·‘경제성 확보’·‘시민 참여’·‘공원 서비스 제고’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된다.

10대 과제는 ▲공원 리모델링 추진 ▲수원 천년의 숲 조성 ▲주요 공원 조성 ▲수익시설 도입 ▲감리 제도 및 설계 VE 도입 ▲공원 조성 설계·시공 현상공모 ▲도시공

원 시민기획단 운영 ▲가족공원 도입-시민공모 ▲셉테드(CPTED) 인증제 추진 ▲숨이 있는 공원 조성 등이다.

모듬 토론에서는 ▲노후 주거지 재정비 사업 때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담당 없는 정원 조성 ▲시민이 직접 도시공원 조성에 참여할 방안 마련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해 이용률 높이기 등 의견이 나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 정책 관련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속해서 공원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공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인천시,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기업 경쟁력 강화위해 협력

## 시,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가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소부장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1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에서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공동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반도체 후공정분야 소부장산업의 연구개발(R&D), 애로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시험평가·기술인증·특허출원 지원 등 기초연구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후공정 소부장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킬 계획이다.

주요 협력내용은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애로 기술지원 체계 구축 ▲평가, 인증, 특허 지원 등 기술 성과 강화 지원 ▲인천시 파트너 기업, 협력 기업의 정보 교류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잠재력이 국내에서 가장 높고, 공학·항만·경제자유구역 등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 선정지 가장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메카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시 소부장기업

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에는 앵코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 세계 2·3위 기업을 비롯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등 1,264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포진해 있다.

또한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출범을 시작으로 산·학·연·관 업무협약,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대외홍보 등 특화단지 유치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종남/기자

#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항 일원 현장방문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10일 평택지역 경제자유구역·평택항 일원 현장방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0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포승·현덕지구 조성 진행 상황과 수소 교통복합기지 건설 등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경제자유구역은 ‘서해안 중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총 3개 지구 524만㎡(159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평택 지역에는 현재 2개 지구(포승지구, 현덕지구 등 132만 평)를 조성 중에 있다.

평택 포승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해 2019년 말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고, 2020년 12월 말에는 개발사업이 준공됐다. 현재 물류기업 11개 사 등 총 42개 사에 용지가 분양되어 물류센터 등 각종 건물공사 착공이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개청 이후 현재까지 총 44개사와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FDI) 약 120백만불을 포함하여 1조 9,86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전국 경제자유구역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평택항 인근 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운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물류, 유통 산업의 최적지”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도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 고양시,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 안부·말벗 서비스 실시

## 챗GPT 대항마 ‘하이퍼클로바’ 기반...인공지능, 돌봄 필요한 어르신 정서 보듬는다

고양특례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어르신 안부·말벗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의 인공지능 말벗 서비스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정서를 어디까지 보듬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고양시의 ‘어르신 안부전화 AI 말벗 서비스’는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하이퍼클로바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국산 인공지능이다.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말벗 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로는 전국 최초로 일산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도입했다. 말벗 서비스는 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중 혼자 살거나 치매위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인공지능은 주1회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준다. 인공지능은 안부, 건강, 음식 섭취, 고민 상담 등 자유로운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며 통화가 되지 않거나 통화 중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센터 직원이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대상자를 안부를 확인한다.

사생활 침해나 감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원봉사자 지역 활동가의 활동이 어렵고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전화 말벗 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인공지능 말벗 서

스를 시범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우울감 및 기억력 감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인공지능 목소리 또한 사람과 흡사해 어르신들이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는 92% 수준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는 보통 스마트기기로 이뤄지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고양시의 말벗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별도의 스마트폰 없이 일반 전화로도 이용 가능해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2022년 말벗 서비스를 무료로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2,200만원을 교부 받아 고양시 자체 예산 투입 없이 대상자를 500명으로 확대해 말벗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말벗 서비스를 선보이는 만큼 안전전화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의 인지 능력과 우울증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겠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 오산시 6개 동 보건복지팀장 간담회 열어.. 복지사업 활성화 논의

오산시는 지난 9일 6개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 복지사업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역복지 평가 분야별 부진 지표에 따른 부서별 요청사항 설명 ▲부서별 부진실적 사유 분석 및 실적향상 방안 논의 ▲각 동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희망 복지 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및 자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 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동별 복지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최일선에서의 의견을 나누며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옥희 희망복지과장은 “복지 전달 체계가 동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가중된 업무에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총총히 살피고, 지역



사회에서 나눔과 돌봄 활동을 강화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양시현/기자



# 청송군, 문화경제 활성화로 풍요로운 청송 건설

- 문화·체육경제 예산 270억 투입, 문화로 미소짓는 상생경제 실현  
 - 윤경희 청송군수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및 스포츠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향유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으로 남관생활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 공간 재구성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충, 문화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전시공간과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등 주민



청송군은 올해 문화·체육·경제 분야에 예산 270억원을 투입, 민선8기 군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로 미소짓는 상생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경제 활성화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청송」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로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청송을 위해 문화교양강화 및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각종 문화예술공인 유치 및 개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문화욕구 해소 및 문화예술

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현서면 덕계리 일원의 「이오덕 동화거리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 올해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용역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특색 있는 문화마을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도)지정 문화재는 물론이고 지역의 향토문화유산 등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복원에 나선다.



아울러 문화재 안전경비원 등을 채용해 지속적인 점검 및 정기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정밀실측 및 기록화 등을 통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에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해 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우수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유구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재를 통해 청송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보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문화재는 박제된 구시대 유물이 아닌 시간 속 살아 숨쉬는 유산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등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고, 덕천마을 화장실 건립 등 문화재 주변 편의시설을 구축해 관광자원화에 더욱 힘써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산악스포츠 도시로 입지를 구축하고 체육 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힘쓴다. 그 첫 시작으로 3년만에 개최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17개국 100여명 선수들이 참가, 성황리에 대회를 마쳐 청송군의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 확립에 기여했다. 이외 산악자전거대회(4월), 전국모터사이클 챔피언십(4월), 드라이빙대회(7월), 청송사과 트레일런(10월) 낙동정맥등반대회(11월) 등 사계절 산악스포츠 대회 개최로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이뤄 나갈 전략이다.

올해는 2018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개최를 못했던 청송군민체육대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대회를 통해 8개 읍면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

이와 함께 전국 고등부 축구 리그, 청송 사과배 전국테니스대회, 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탁구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와 각종 중소 규모의 대회를 지역에서 개최해 나가면 지역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송아우토어골프연습장 건립, 산남지역파크골프장 조성, 진보면 농업인파크골프장 조성 등 읍면별 체육시설 정비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 친화도시를 만들어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편의에 심혈을 기울인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청송사랑화폐를 작년과 같은 규모인 700억원 규모로 연중 10% 할인 발행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올해 35억원 규모



로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진보객주시장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지원 사업 등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청송을 만들어 나간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또한 이와 함께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및 스포츠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대구시, 2023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문화예술교육 8개 공모사업 59개 단체 및 기관 선발 예정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23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수) 오후 2시 엑스코 306호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문예진흥원은 올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으로 총8개사업 약 12억원, 총 59개 단체를 선발한다.

이 사업은 '지역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구' 비전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교과연계형'(예술공학교)/'지역특화형'(▶골다

락도요 문화학교, 지역특성과 문화예술교육/▶예술로놀자)/'기관협력형'(문화예술교육사현장역량강화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파출소)/'연구개발형'(예술교육랩) 총4개분야이다.

이를 통해 유아~노년층까지의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 나아가 대구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대구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지역화·다양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문예진흥원은 현장 의견을 수렴, 지난해 10월,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 관

계자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한편, 4회에 걸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 지역 교육계, 학계, 유관기관부터 실제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으로 올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이뤄 모니터링 평가 폐지, 사업비 집행 조건 완화 등 행정 간소화로 현장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사 우대조건을 강화하고 신규 기획사업 개발 등 신규단체/청년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진입조건을 완화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기획 사업인 '예술로 놀자'의 경우 '방문형'(아동센터,노인지원시설,장예

인 지원시설,군부대 등 문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문화예술교육 제공)과 '거점형'(지하철역 등 기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퇴근길 직장인 등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제공)으로 나눠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해당 지역 내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설

명회에선 '예술로 놀자'를 비롯, 분야별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과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신청 방법/신청서 작성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설명회가 끝난 후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 현장에서 저작권 및 관련 법률에 대한 1:1 상담도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파견한 저작권 전문가 및 변호사가 현장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는 개인을 비롯해 단체 및 기관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에 참석 못한 단체 및 기관을 위해 공모기간 동안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문예진흥원/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dgarte.or.kr)에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후 이메일(dgarte@dgfc.or.kr) 접수하며, 컨설팅은 해당 사업 담당자와 유선 or 이메일로 진행하고,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신청은 2.14~28일까지 진행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로 접수하며, 기타 문화예술교육센터(053-430-1282~4,1293)로 문의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 칠곡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식 체결

### 2023 ~ 2026 4년간 16억원 사업비 확보(군비 8, 교육청 8)

지난해 하반기 경상북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교육지구사업 업무협약식을 지난 6일 도교육청(안동시) 용비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 칠곡군, 문경시, 청송군이 합동으로 개최했다.

앞으로 4년간 사업비 16억원으로 소통과 공감의 칠곡군 교육협력협의체 구축,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 주민과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마을 학교 운영 등 칠곡군에 맞는 사업을 군청과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심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욱 군수는 "교육지원청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고, 주민과 학생들이 만족하는 따뜻한 칠곡교육 실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여 지역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광삼/기자



## 영천시, 영천9경 구경하고 선물도 챙기고

영천시는 오는 13일 스마트폰을 활용해 안내 관광지 정보를 확인하고, 스탬프 인증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는 '2023년 모바일 스탬프투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스탬프투어' 앱 설치 후 대표 관광지를 방문, 해당 관광지에서 GPS 인식을 통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인증 가능한 관광지로는 ▲임고서원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영천한마을 ▲별별미술마을 등 영천9경을 비롯해 ▲노계문학관 ▲최무선과학관 ▲영천목재문화체험장 등 영천의 대표 관

광지 총 20곳이며, 이중 스탬프를 10개 이상 모아 이벤트에 신청한 관광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관광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광지 후기를 작성하고 '좋아요'를 많이 받은(10개 이상) 작성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영천시를 방문한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영천의 다채로운 관광지를 방문해, 기념품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영탁/기자



## 대구 서구, '힐링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 함께 걷는 건강한서구 힐링건강걷기와 함께하세요

대구서구보건소는 걷기실천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힐링건강걷기' 프로그램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힐링건강걷기'는 강사와 함께 음악에 맞추어 체조하며 걷는 운동으

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평리권은 평리공원에서 매주 화, 목요일, 중리권은 그린웨이에서 매주 월, 수요일 주2회 저녁 7시 ~ 8시에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 전·후 체성분검사, 혈압·혈당 검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주기적인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운동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 2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은 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박미영 서구보건소장은 "하반기 내담·비산권 '힐링건강걷기' 운영, 모바일 걷기챌린지 '워킹!서구' 등 다양한 신체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영양군,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

영양군은 오는 2월 13일부터 만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군민과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으로 과거 대상포진 접촉력이 없어야 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영양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만원 상당의 높은 비용으로 고령층 및 저소득층 군민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개정 등 사전준비를 거쳤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시행하게 됐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



졌을 때 수포성 발진과 심각한 통증,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신경계와 폐, 간을 침범하기도 해 후유증이 치명적일 수 있다. 영양군 장여진 보건소장은 "대상

포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발병 및 합병증도 예방되어 노년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과기부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사업 선정

## 도심 침수피해 사전 예측 관리, 국비 28억5천만 원 확보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해 보는 기술)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사업에 지난해 대평 '힌남노'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시 일대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6억 원을 (국비 28.5억 원, 지방비 7.5억 원) 투자해 동일 강수량

이더라도 지형지물 및 환경에 따라 피해가 달라지는 등 각각의 상황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간

상황 분석·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실증사업은 ▲도시침수 분석·예측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실시간 침수 모니터링 및 스마트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내·외수 연계 도시침수 예측 시뮬레이션 구축 ▲도시침수 통합관리 시스템 및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 도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추진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내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은 "금년 전국 최대인 국비 1,251억원의 자연재해에 방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민의 재산



과 생명 보호 하 기 해 적극 힘 쓰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사전 예측하고 관리해 각종 재난에 한층 더 안전한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남해군, 건강고령친화도시 최우수상 수상

##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8개 영역 우수한 평가

남해군이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 연구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1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 대상'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 인프라 구축 등 고령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고령친화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전파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개 영역을 심사했다.

남해군은 2019년 11월 경남내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배움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



어, 9일에는 남해군청에서 자측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경남에서 첫 번째, 전국에서 열네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에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았으며, '행복한 동행, 세대통합 남해'를 비전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포함한 69개 사업을 5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장준남 군수는 "2019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행정차원, 적극적인 선제적인 정책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군민이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 봉화군, 2024년도 제1차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

- 박현국 봉화군수, 군 성장 동력 위해 국도비 확보에 올인해
- 백두대간 야생화 생태원 건립 등 총 사업비 9,883억 원 중 1,356억 원 건의

봉화군은 10일 침체된 민생경기 회복과 풍요로운 봉화 건설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2024년 제1차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현국 봉화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사업 부서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신규사업 38건, 계속사업 34건 등 총 72건의 추진현황과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 주요사업은 ▲백두대간 야생화 생태원 건립(2,300억 원) ▲한국 입업진흥원 본원 유치(320억 원) ▲봉화벚꽃마을 조성(294억 원)을 비롯해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80억 원) ▲농촌 일자리중개센터 건립 등으로 총사업비 9,883억 원 중 1,356억 원을 건의해 확보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군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투자예산 발



굴과 이에 따른 국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부처 등을 열심히 뛰어야 할 계획이다."라고

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강한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정금자/기자

# 달성군,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국 최대 규모로

## 농식품바우처 41억 원 지원 한다

달성군이 농림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21억 원을 확보, 총 41억 예산으로 오는 3월부터 저소득 먹거리 취약계층에 전국 최대 규모의 신선 농축산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0,700여 가구가 농식품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바우처 지원 희망자는 2월 20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4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한다. 지원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등 농축산물이며,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농협몰 등을 통해 구입가능하다.

최재훈 군수는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사업으로 수혜가구와 관내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 의성군,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회의 개최

- 안전 보건업무 충실 여부 점검, 미흡분야 조치
- 김주수 의성군수 "안전·보건관리에 한치 소홀함 없도록 최선 지시"

의성군은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이 다름에 따라 맞춤형 부서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안전건설과 산재예방팀장의 사회로 44개부서 주무팀장,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안전

보건 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파악,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등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논의했다.

이번 부서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이후, 연 2회 각 부서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중대재해가 일어나기 전 같은 원인으로 수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번의 징후가 일어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 경산시, 납세지원 콜센터 성과 UP! UP!

경산시는 2016년부터 8년간 100만원 이하 소액채납자를 대상으로 징수과 내 납세지원 콜센터를 통해 채납세 납부 독려에 힘쓰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콜센터는 지방세 2명, 세외수입 1명 총 3명의 상담사를 통해 지방세·세외수입 채납자에게 전화 독려뿐 아니라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채납처분 관련 상담 등 시민의 조세 고충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 2년간 총 88,560건의 상담을 진행해 총 45억여 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하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바쁜 일상 속 잊기 쉬운 소

액 채납세를 전화 안내로 상기시키거나 채납자의 근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친절한 상담과 부드러운 응대가 채납세 납부로 이어져 위와 같은 결과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징수과는 "납세지원 콜센터는 재산 압류 등 강제처분을 통한 납부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끌어내는 세수 증대의 숨은 주력"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중심이 아닌, 납세자 중심의 납세기법을 추진해 건강한 세무 행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송광삼/기자





### 홍준표 시장, 본격적 지방시대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에 앞장서

- 신공항, 금호강 프로젝트 조직 등 대구발(發) 지방조직 권한 대통령 건의
-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적 건설 위한 영남권 시도지사 단결 의지 확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금),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 설치 등 지방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하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홍준표발(發)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은 지난 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의 제안으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핵심 화두가 되었다. 이에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이양되어야 한다는

한목소리로 대통령께 건의했다.

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 포함됐다.

홍 시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할 것을 덧붙였다.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직급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내 조직 운영 자율권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행안부, 시·도,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김안건으로 대구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한 양대 공항 사업 추진에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고, 영남권 분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5개 시·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한마음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환경담당 공무원 업무연찬회

- 업무 역량 쑥쑥! 민원 만족도 쑥쑥!
- '클린 예천' 조성 위해 환경업무에 적극 대응

예천군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환경관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공무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업무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올해 환경분야 역점시책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환경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천군 순환매립장에서 생활폐기물 반입기준에 대해 약 1시간가량 현장 교육을 진행했으며 군청 정보화교육장으로 이동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친환경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등 각종 보조자금을 설명했다. 이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유류 유출사고 등 수질분야 시설관리요령, 슬레이트 처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와 종량제봉투 관리요령 등 분야별로 환경관리과 업무담당자가 설명하고 상호 토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군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환경업무 연찬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환경분야 중점 추진사항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개선, 신규 사업 발굴 등 담당자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해 제30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대상, 경상북도 주관 경북환경분야 대상, 세계물의날 물관리 평가 최우수, 탄소중립 실천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폐건전지 집중수거 캠페인 추진 우수, 영농폐기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근수/기자

### 영주시, "인구 10만 유지 안간힘" 주소갓기 운동 추진

- 전입 'YES!' 타 지역 전출 'STOP!'
- 지역 기관·단체·기업 임직원 미전입자 전입 독려

경북 영주시가 인구 유입 시책 일환으로 전 시민과 기업·기관·단체가 함께하는 '영주시 주소갓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역 기관·단체·기업 등을 방문해 영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일 현재 영주 소재 주요 기관·단체 및 기업 임직원 6천 882명 중 미전입자가 2천104명으로 약 30% 정도가 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전입 임직원들의 전입유도를 위해 시는 주요 기관·단체 및 기업에 '영주시 주소갓기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박남서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지속적인 지역 인구감소의 심

각성을 공유하며 다양한 전입자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별 업무와 연관된 기관·단체 및 기업 등을 지정해 전입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4월경에는 영주시 10만 인구 사수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 영주시민 단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소재 대학교 학생 중 미전입자 3천762명(2022년 10월 기준)에 대해서도 3월 개강 이후 학과별로 방문해 영주시 주요 전입시책 및 지역대학 재학생 지원사업 등을 홍보한다. 찾아가는 전입창구도 개설해 지역 미전입 대학생의 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남서 시장은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영주시 투자 확대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영주시 인구증가의 모멘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그때까지 적정인구 유지 및 10만 인구 유지를 위해 영주시 주소갓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2023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울진군은 지난 9일,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울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등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울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농업 관련 기관, 농업인단체 등 산학관 협동체를 통해 신기술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는 고품질 대응 공동영농대행 모델개발 및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노동력 절감 사업, 기후 온난화 대응 지역맞춤형 특화과수 재배 기반 조성 사업, 소득작목 우량종자 확대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분야 22개 사업(총사업비 30억)에 대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의 의결로 확정했다.

또한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7월 중간평가회 11월 종합 평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발굴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겠으며, 현장 밀착형 영농기술 지원도 병행 추진하여 지도사업의 내실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황중호 농업기술센터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집중 발굴해 나

장문화/기자

###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 군위군 편입 실무협의회 개최

- 10개 주요사무 분야, 양 교육청 70여 명 실무진 모여 구체적인 논의 진행

대구시교육청은 경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월 10일(금) 군위교육지원청 및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을 방문하여 '군위군 편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군위군 편입 확정 후 처음 열리는 두 교육청 간 실무 중심 차원의 협의회로, 지난 6일(월) 대구시교육청이 자체 편입추진단을 개최하여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양 교육청의 업무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 전종섭 정책지원국장장과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조직·정원, 인사, 재산, 시설 등 주요사무 10개 분야 40여 개 세부 항목에 대한 현안 및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공무원 정·현원, 전보 등 인사 운영방안, 공유재산 이관 및 폐교재산 활용 방안, 현재 추진 중인 군위지역 학교(기관) 시설공사 현황 및 이관 방안 등 각 분야별 인수대상 사업 세부 추진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진행한 실무협의회 결과를 군위군 편입 추진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군위 지역 교육



수요자에게 대구시 편입과 동시에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양 교육청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위 지역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경북형 디지털 교육 세계화에 첫걸음!

#### 따뜻한 경북-R컴퓨터 개발도상국 나눔 협약식 개최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금), 경북형 디지털 교육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따뜻한 경북-R컴퓨터 개발도상국 나눔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생과 학교 업무 경감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사업으로 아진산업(주), 유엔헤비타트 한국위원회, (주)케이티, (주)티에스 등 4개 회사와 협력해 향후 5년간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산하 경북광역시 활센터와 따뜻한 경북-R컴퓨터 재자원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각급 학교에서 불용 처리되는 노후 정보화 장비를 수거해 재자원화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본 사업은 경북교육청이 추구하는 경북형 디지털 교육 세계화의 핵심사업이다.

특히 재자원화된 따뜻한 경북-R컴퓨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에 제공되어 학생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과 협약업체 중심의 재자원화 추진은 학교별로 추진하던 정보화 장비 불용 업무의 경감과 함께 재활센터 고충 완화를 통한



지역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어 더욱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경북형 디지털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경북-R컴퓨터에 대한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따뜻한 경북-R컴퓨터 개발도상국 나눔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발굴을 통해 경북교육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 남구, 남구맘채널&맘톡 개설 우리 친구할까요?

- 2월 13일부터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 진행  
- 남구맘채널 추가하고 모자보건사업 1:1상담 받으세요!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10일, 모자보건사업 안내와 홍보, 임신부 및 또래 부모들의 정보공유를 위해 '남구맘채널' 카카오톡 채널과 '남구맘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남구맘채널', '남구맘톡' 개설 운영은 임신부터 육아까지 연속성 있는 정보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함께하는 육아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남구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남구맘채널'을 개설 운영해 주민들이 원클릭만으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건강정보와 남구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채팅으로 1:1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픈 채팅방인 '남구맘톡'을 개설하여 예비 부모와 임신부 또래 모임과 출산가정의 모임으로 구성해 다양

한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방법은 카카오톡을 실행 후 검색창에 '남구맘채널'을 검색하거나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인식하여 채널을 추가하면 되고, 오픈 채팅방 이용은 검색창에 '남구맘톡'을 검색해 입차 후 참여하면 된다. 한편, 남구는 오는 13일부터 예비 부모, 임신부 및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남구맘채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이벤트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카카오톡 채널 개설 운영은 주민들에게 익숙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모자보건에 대한 관심과 보건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상반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신청 하세요

아동NGO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강사 파견해 맞춤형 교육 실시  
경주시가 지난 10일,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6월 30일까지 '상반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아동권리를 교육·홍보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아동 및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아동(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부모 등이며, 교육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지 경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메일로 (leekh74@korea.kr)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아동 NGO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강사를 파견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아동청소년과(054-760-7738)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아동권리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영남권 5개 시도, TK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모으기로

- 대구경북신공항,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협력 약속  
- 영남권의 갈등 종식 및 경쟁에서 협력으로 인식 전환 기대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의 만남을 갖고 두 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5개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두 공항에 장애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이 지역 주민의 염원에 따라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화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남의 배경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후시나 가덕도 신공항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갑론을박은 자칫 지역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있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안했고,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때와 같은 반목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될 수 있었다. 이번의 합의는 공항으로 인한 영남권의 갈등을 종식하는 동시에 두 공항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인식을 전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공항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정치권과 협의해 가고, 두 공항 모두의 조기 개항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결정했다"며, "3월에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 앞으로 이와 같은 갈등이 없도록 수시로 만나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버스킹 공연 '메이드 인 부산판(made in 부산판)' 개최

버스킹 즐기면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세요!



부산시는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수영구 밀락더마켓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버스킹 '메이드 인 부산판(made in 부산판)'을 개최했다. 이 버스킹 공연은 지역 인디밴드와 협업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된 곡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들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당위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소통하고 함께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공연이다.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현지실사를 앞두고 범시민 유치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련 됐고, 다양한 연령대와 소통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포함 ▲서면 상상마당 야외(2.25.) ▲중구 광복로(3.11.)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4.1.) 등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총 4회 개최한다.

행사의 명칭 '메이드 인 부산판(made in 부산판)'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 하는 마음으로 부산시민과 함께 '무대판'을 벌인다는 의미다. 이날 공연은 젊은 아티스트로 구성된 부산지역 실력파 인디밴드 <단편>과 <버닝소다>와의 협업으로 진행된

다. <단편>과 <버닝소다>는 다양한 공연에 맞춤형 컨셉으로 공연을 만들어 가는 섭외 1순위 버스킹 팀으로 이날 공연을 통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연 취지와 지지 열기 확산을 위한 메시지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40대 젊은 세대들의 소위 '핫플레이스'로 인기가 높고 부산의 강점(도시의 수변공간)을 잘 표현해주는 광안리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에서 진행돼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공연에는 엑스포 쿼츠를 풀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 가도록 했고, 공연 전, 관람객들에게 4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에 유치 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평가단이 방문하는 4월은 특히 손님들 받아들이는 주체로서 부산시민들 환영과 응원이 유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설명할 계획이다. 다양한 이벤트로 쿼츠 정답자 등

관람객들에게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란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개최의미를 담은 홍보기념품(친환경 주방세제)을 제공, 요즘 '인싸'로 거듭나고 있는 시 소통캐릭터 부기와 인종샷도 찍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알리고 소통하는 시민밀착 홍보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국가의 주체는 시민 한분 한분"이라며, "4월 실사단 방문 확대부터 11월 유치 결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실사단 손님 맞이 등에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가장 매서운 추위가 감돌았던 12월 23일 2022 광복로겨울빛 트리축제와 연계해 광복로 시티스폿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버스킹 공연을 진행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던 바 있다. 송종진/기자

##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 가동

- "신산업 아이템 발굴해 정책 방향 제시"
- 연구소, 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구성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4차산업 신모델 개발 및 혁신성장 가속화 기대



안동시는 지난 10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스마트 제조기술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란 슬로건으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안동시장을 위원장으로 2명의 당연직 위원과 12명의 위촉직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에는 소프트웨어, 로봇, 전자통신, 신소재, 바이오, 스마트팜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소, 학계, 산업계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위원회는 안동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산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개발과 관련 기반산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로써,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사업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안동시가 발표한 『스마트 신속적응 제조기반 생명가치유지 파운드리』사업의 기술개발과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세부 추진 방



향 검토 및 예산 투자 범위 설정 등의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했다. 위원회는 『스마트 신속적응 제조기반 생명가치유지 파운드리』사업을 신산업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기존의 바이오·백신 산업과 융합하여 향후 안

동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권기창 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 가운데에서 안동시가 미래 전략사업을 선도하는 활력 넘치는 성

장도시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전라북도, 전국 시도지사 한목소리로 지방시대 실현 강력 주장

##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전북도에서 개최



전라북도는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제안한 지방의제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이양 방안', '지방재정교육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구설치와 지급 기준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지역특성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시도지사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전라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와 관련해 각 시도의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오는 5월 13일 개최식에서 시도지사님들께서 참석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에도 시도에서 많은 관심

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전북만이 아닌 각 지역과 연계해 체류하고 즐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도 김관영 지사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며 따라 두 대회의 성공 개최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서 지난 2021년 8월에 조직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남원시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정서 발달지원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관내 저소득층 아동 150명을 대상으로 1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해 국.도비 2.1억에 이어 자체 사업비 1억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올해는 3년간 코로나19에 묶여 건조하게 지냈던 답답한 삶의 연속에서 벗어나 치유와 역동적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육자의 역량강화와 후원 연계를 기반으로 가족 중심의 사례관리를 구축했다.

100명의 아동 및 가족에게 가족여행과 외식체험으로 가족의 화합과 가족애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10가구는 양육코칭 전문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양육자의 역량을 높여주며, 9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발달치료, 학습

지도, 문화체험 등 자존감 향상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아동의 발달영역별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업무 연계 및 협약을 통해 공적서비스와 민간자원 발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국.도비 7천과 자체사업비 5천여원을 확보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귀가를 책임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시간 연장 운영으로 돌봄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남원시 여성가족과장(차미화)은 "아동의 체계적 개입을 통해 아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촘촘한 보호 체계 구축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남출/기자

이남출/기자

## 전주시 우범기 시장, 계묘년 새해 '시민 삶 속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시민 삶 속으로 나섰다.

전주시는 오는 16일 덕진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우범기 시장이 35개 모든 동을 순회하며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2023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동 순방은 민선8기 전주시정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동별로 유관기관·단체장과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대표 100~500여 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동 순방은 민선8기 전주시정 비전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실현을 위해 각 동별로 △동 현황 청취 △2023년 시정운영 방향 설명 △시민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 시장은 이번 순방에서 민선 8기 전주시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갖게 된다.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되며, 전주발전과 각 동별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을 끝까지 설명하고 이후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시장 취임 이후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해왔다. 구체적으로 우시장은 전주의 대변력을 위해 산업·경제·문화·복지·규제개혁 등 주요 핵심사업 현장을 꾸준히 찾고 있으며,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각 실·국별 업무보고도 주요 사업장에서 진행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경제를 통해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도약과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가 시대를 뛰어넘는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블록 첫 출항 기념행사 개최

## K-조선의 힘! 다시 도약하는 군산 조선

지난해 10월 재가동 선포식 이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10일 첫 블록 출항식 행사를 가졌다.

군산시는 전라북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앞서 2월 재가동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원래 예정인 1월보다 3개월 앞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블록 생산의 첫 공정인 철관 가공공정을 시작으로, 소조립, 대조립, 도장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산된 블록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로 옮겨져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쓰여지게 된다.

이날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블록 첫 출항 기념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이공노 법무부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산업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권오갑 HD현대 회장 및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현대중공업 임원진들도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군산조선소에 도착한 이 산자부 장관은 행사에 앞서 행사장 앞에 별도

마련된 귀빈실에서 김 도지사, 강 시장, 신 의원 등 주요 내빈과 함께 환담을 가졌다.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덕담을 나누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격려 및 협력을 당부했다.

공식행사는 블록의 선적과 출항이 시작되는 물양장에서 진행됐으며, 현대중공업 HD현대 권 회장의 환영사와 김 도지사, 이 산자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물량확대를 통해 고용인력을 늘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하이라이트인 첫 선적 출항 기념 퍼포먼스는 주요 내빈 9명이 무대에서 버튼을 누르면 벨트 소리와 함께 힘차게 선적이 출항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군산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타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아픔과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5년의 과정을 참으로 험난하고 현실은 냉혹했다."면서 "그동안 군산조선소가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희망을 안고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재가동의 첫발을 내딛은 만큼, 머지않아 모두가 바라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 가동으로 신조까지 추진하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세계1등의 조선강국으로써 중추적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약10만톤 규모의 블록 생산은 생산 유발효과 1,989억원과 인구유입효과 3,600명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현태/기자

# 완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등 산불예방 총력대응 돌입

## 최근 대형 산불들로 인한 경각심 고조, 산불 없는 완주군 만들기 위해 노력

완주군이 불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올해 5월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눈·발두름 불법소각 및 산림이용객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인 오는 5월 31일까지를 불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 체계로 돌입한다.

완주군은 군 산림녹지와 직원과 읍·면 산불감시원 7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2명을 총동원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읍·면 산불감시원에게 배부된 산불 신고 단말기를 통해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체계를 구축했고, 주요 등산로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 조기 발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8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12대와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을 정비, 점검했고 장비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익산 산림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 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불 조심 깃발, 현수막을 설치하여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함은 물론 소각행위 취약 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



시하고,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한 산림인접지역(산림과 연결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영농부산물 제거작업(부산물파쇄)을 지원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완주군은 보다 체계적인 산불 대응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용진읍 운곡리 일원에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고 올해 6월경 준공 예정이다. 군은 이번 센터건립

으로 산불 진화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불 진화장비 보관시설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공간 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적은 강우량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에 입산시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산불 발생 시 산림녹지과(063-290-2758) 및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원도심을 국내 대표 청년창업 메카로"

## 지역 출신 벤처 사업가,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회장 면담

정현을 익산시장이 낙후된 원도심을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국내 대표 청년창업 메카로 조성한다.

정 시장은 10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회장과 면담을 갖고 벤처기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의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민우 회장은 익산 출신으로 지난 1991년 창업 이후 2005년 국내 벤처기업 최초로 매출 1천억원을 돌파하고 한국벤처기업협회장까지 역임한 국내 벤처 업계 1세대 대표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양 측은 익산에 홀로그램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청년 창업 인프라가 집중돼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 창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원광대, 다산네트웍스, 벤처기업협회는 협력을 통해 벤처기업 성공사례나 지역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을 교류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원도심 일원에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홀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창업 스타트

업 생태계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원도심을 포함한 도심 곳곳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와 XR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홀로그램 체험관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됐고 이와 연계해 홀로그램 기업 17곳을 유치하며 XR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왔다.

이를 토대로 시는 연구기관과 창업 공간, 기업들을 집적화한 허브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성장축으로 만들 계획이다.

남민우 회장은 "익산은 청년시청과 원광대, 연구기관 등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익산이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거점이 되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그동안 홀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이를 집적화한 허브 구축으로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은 젊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 구례군, '2023년 새로운 도약의 해 만든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기간 중 4일간)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순호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사업, 국·도비 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먼저 올해는 재난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찾는데 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굴한 일자리, 교육, 관광 등 분야별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발굴하고 인구감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기업유치의 우수 사례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 치유 병원 건립과 스마트오피스 단지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 제3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인근에 치유농업 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치유 중심의 융복합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5일 시장 시설 개선과 알콩달콩 장터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청년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젊은 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원인 발달가습음 보급자리를 조성하고 블루투어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산업의 중흥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구례읍 권역은 도시재생, 5일시장 환경개선, 광장 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기능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명예군민 자치센터와 그때 그날 기록관 등을 통해 외부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업분야에서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과 기술을 지속 지원하고, 농가 실질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소득 작물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경영과 안정적 정착을 함께 지원하는 등 희망을 가꾸는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자치 협력지구'를 운영해 민관학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자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농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 조성으로 교육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저변확대로 향후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행복가족복합센터와 웰니스 복합센터 건립 등 가족복지 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 기반 시설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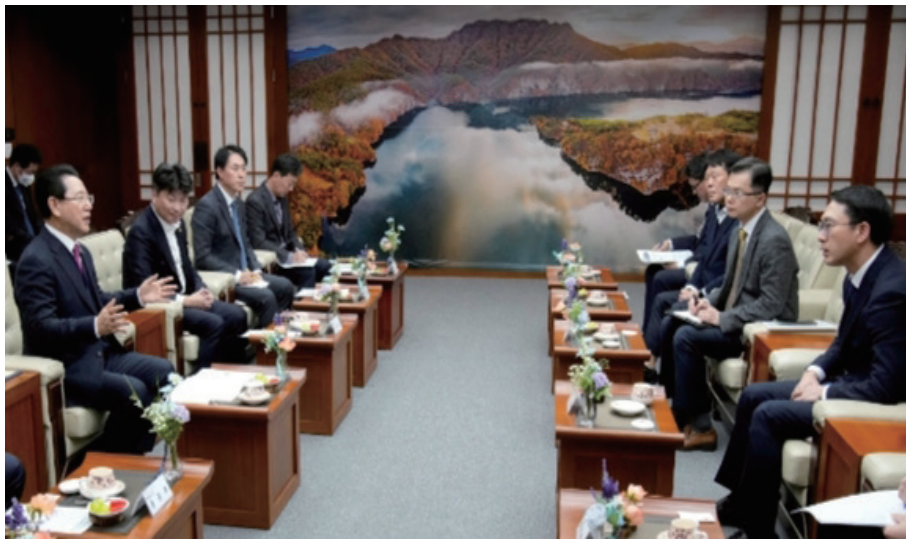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안전분야에서는 수해복구와 항구적 예방을 위한 지구단위 종합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순호 군수는 2023년이 실질적으로 민선8기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원년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별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현/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토부에 남해안관광지 육성 협력 당부

### 남해안 종합개발청 제안...지역협의회선 SOC·국가산단 등 논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토부에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 관광지로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9일 사회기반시설(SOC), 국가산단 등 전남 현안사업의 정부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토부-전라남도 지역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를 방문한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사전 면담을 갖고 전남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부산시장, 경남지사와 체결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상생 협약을 언급하며 "남해안을 지중해, 멕시코 간군과 견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토부 중심으로 범 중앙부처가 함께하는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전남은 목포, 나주, 여수 등 거점도시와 다도해, 지리산 등 천혜의 경관을 갖춰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실질적 균형발전 성과를 거두도록 전남도와 지속해 소통하면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열린 협의회에서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현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들

도 전남도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남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및 조기 추진 ▲경전선 전철화사업 우회노선 반영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대상 선정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대상 선정 ▲지방도 사업 중 연륙·연도교에 대한 국비 지원 ▲혁신도시 건설 고속 추진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관문 공항 육성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신속 조성 ▲농



협·수협 중앙회 등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미래비행체 통합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등이다.

동부권, 중남부, 서남권 등 전남 각 권역에서 광주를 잇는 광역교통망이 다수 포함돼 전남·광주 메가시티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수협 중앙회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겨냥해 전남도가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유치 희망 기관이다. 지난해 12월 신정훈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중앙회 소재지를 '전라남도'로 명시한 농협·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오는 16일에는 국회 토론회도 예정됐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정해명/기자

## "GB 해제총량 제외 대상에 군공항 포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중앙지방협의회의서 제안

###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 국가 책임 종합 물관리대책도 강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의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지방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중앙지방협의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다.

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방협의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총량 감축을 추진하는 원년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광역권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제외했는데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공항 이전 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광주 내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해져 신규산단 조성 등 지역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등 기상이변은 어느 도시·국가에서

나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위기"며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광주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과 같은 종합적인 중장기 물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의회의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 확대 방안 등 4건을 심의했다.

강 시장은 제3회 중앙지방협의회의 참석에 앞서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제52차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차기 중앙지방협의회의 의결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수/기자

###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장흥 부억마을 보라빛 새단장



장흥군 관산읍 부억마을이 4년 동안의 정비사업을 마치고 주민들의 자랑거리로 새롭게 태어났다.

관산 부억마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2019년 선정됐다.

읍 소재지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고 생활여건이 좋지 못한 마을이었으나 장흥군농촌활력사업소에서 면밀히 준비한 사업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마을을 바꾸는 데는 총사업비 22억 원이 들었다. 4개년(2019~2022)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은 마을 담장정비, 안길 포장, 공동우물 복원, 석축 정비, 배수로 정비, 안전로 조성, 보안 등 정비·신설 등이 먼저 진행됐다.

이어 상수도 관정정비, 섬터 조성, 운동기구 설치,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철거, 소규모 집수리,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마을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작업도 진행됐다.

독거노인 방문케어, 마을안내지도 제작 배포, 건강교실 운영, 꽃단지 부억마을 만들기, 국내 선진지 견학, 스토리텔링 개발 컨설팅 사업 등이 올해 3월까지 완료된다.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군은 주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내용을 반영하고, 전남도와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주민들은 마을입구의 아름다운 담장부터 견실한 회관까지 둘러보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말한다.

마을을 방문하는 가족이나 친지, 외부인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마을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주민이 행복한 장흥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 해남군 땅끝마을 땀샘일출 "기적같은 희망이 솟아난다"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곳, 해남 땅끝 마을에서 땀샘 일출이 펼쳐진다.

땀샘은 해남 땅끝마을 선착장 앞 두 개의 바위섬으로, 갈라진 기암괴석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의 진풍경은 땅끝 관광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일년에 두차례 2월과 10월, 단 며칠간만 볼 수 있으며, 올해 2월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이다.

땀샘 일출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풍광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매력의 일출을 담기 위해 매년 사진작가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은 코로나 이후 관광활성화를 위해 땅끝 일원 관광 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땅끝관광지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땅끝모노레일의 차량과 레일을 교체해 새단장 했으며, 세계 6대륙의 땅끝을 주제로 한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도 완료했다. 또한 한반도 최남단 지점에 설치된 땅끝탐방은 스카이워크를 조성해 '땅끝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라는 색다른 체험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바닥을 강화유리로 조성돼 땅끝바다 위를 직접 걸어보는 스틸을 느낄 수 있는 스카이워크는 최근 야간 조영도 밝혀 땅끝관광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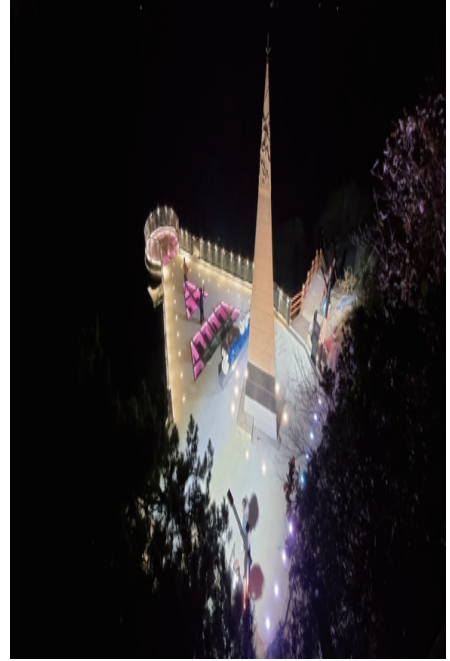
또한 한반도를 종주하는 코리아돌레길의 남파랑길이 2021년 개통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서해랑길이 개통,

국토순례의 시작점인 땅끝의 상징성을 더하고 있다.

땅끝마을에는 인근 바다에서 나온 풍부한 해산물과 해남농수산물을 활용한 음식점들이 성업 중이다. 이 시기 방문하면 간재미, 송어, 매생이 등 제철을 맞은 재료로 요리한 간재미 회무침, 매생이국, 해물탕 등 신선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땅끝 땀샘일출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상징한다"며 "자연이 주는 최고의 비경인 땀샘일출이 주는 희망과 더불어 해남의 맛과 멋을 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광남/기자



### "나주는 제2의 고향" 타지 기업인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눈길

### 기업인 염권정, 최석의 대표 기부금 최고액 500만원 각각 기탁

나주를 제 2의 고향으로 인연을 맺어온 타지 기업인들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기업인 염권정, 최석의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5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염권정 씨는 경기도 김포시, 최석의 씨는 나주시 소재 기업 대표로 두 사람 다 이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각자 인연을 계기로 나주 고향사랑기부제에 흔쾌히 참여했다.

염 대표는 "가문 선산이 송월동에 있어 시제가 있을 때마다 방문해 나주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좋은 제도를 계기로 일회성 기부가 아닌 내년, 내후년까지 나주에 기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 대표는 "나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기업 본사가 나주에 위치해있어 오랜 시간 유대를 맺어왔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나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에 애정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준 두 기업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에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이내

에서 해당지역 특색이 담긴 담례품이 제공된다.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영만/기자



# 태백시『추억의 에너지: 석탄』공동기획전 개최

## 태백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경시, 보령시 양해각서(MOU) 체결

태백시는 지난 9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경시, 보령시와 함께 『추억의 에너지: 석탄』을 주제로 공동기획전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공동기획전은 석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태백시, 문경시, 보령시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오는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공동기획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공동기획전을 개최하게 되어 지역의 홍보와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보유한 콘텐츠를 지역박물관 전시 등에 활용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역사·문화 콘



텐트로 지역을 살리는 공동기획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박물관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을 살

리는 상생 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 강릉살자 시즌3! 젊은도시 강릉 만들어 간다

## 지역이주 프로젝트 운영 청년단체(기업) 모집, 총 2억 원 지원

강릉시는 타지역 및 강릉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강릉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릉살자'시즌3 지역이주 청년정착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강릉살자'시즌3 청년정착 프로젝트를 공개 모집하고 오는 23일(목)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 접수를 받으며, 강릉시에서는 선정된 사업자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대표자가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이고 사업 참여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등이며, 프로그램은 만19세에서 39세 이하

단순 강릉살기가 아닌 취·창업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난 시즌1, 시즌2 프로그램은 청년의 유출을 막고 타지 청년의 강릉이주를 이끄는 청년 인재의 유입으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즌2 3~4기 운영에는 3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12명의 청년이 정착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역이주 청년정착 프로젝트 사업은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지역이주 플랫폼으로, 지역 라이프스타일 경험과 로컬 크리에이티브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등원/기자

또한, 청년들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할 청년공동체를 지원하고 우량한 로컬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신청 방법은 시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제진흥과(033-640-5594)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강릉살자'사업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젊은 도시 강릉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해시, 올 12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완공

## 실시간 수질·수량 감시와 위기 대응으로 깨끗한 수돗물 제공

동해시가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실시간 수질감시 및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수돗물 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등을 포함하여 총 3.826백만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실시간 수질을 감시하는 수질계측기, 이상 수질 발생 시 탁수를 자동(원격)으로 배출하는 자동드레인, 수도관 내부를 세

척하여 수도사고를 예방하는 관세척 등이 있다.

시는 현재까지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를 위한 유량계설 10개소, 자동드레인 4개소, 관세척 인프라시설 8개소 설치를 완료했고, 공정을 75%로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형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빠른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해 수돗물 공급과정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철원군, 디지털 소통의 조력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디지털과 소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수요가 확대되면서 일상생활 대부분이 디지털 기반(키오스크, 배달앱 무인발급기 등)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속 원활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이제 삶의 필수로 자리매김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측정기(블루투스 혈압계, 활동량계, 체중계, 열당기)를 무상대여하고 비대면으로 미션 실천, 건강정보제공,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7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는 인공지능(AI)케어 로봇 "다솜이"를 대여해 소통하는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90.8%의 만족도를 얻으며 건강행태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얻었다.

사업에 참여한 70세의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스마트폰 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 적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 디바이스 기기와 스마트폰 연동으로 미션 성공 선물도 받고, 건강도 좋아지고,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좋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철원군보건소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기기 등의 사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 건강컨설팅과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한층 심세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춘재 보건소장은 “철원군민들의 건강행태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족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 양양군, 노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추진

## 올해 20개소 선정, 2월 28일까지 신청

양양군이 노후 된 농어촌민박의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억 원(도비 및 자부담 포함)의 사업비로, 농어촌민박 20개소에 1개소 당 1천만 원(자부담 200만 원 포함)까지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환경 개선 지원 내용은 객실도배, 방수,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과 같은 민박 내·외부 수리와 설비조정, 간판 설치 등이다.

단,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냉장고, 세탁기 등) 구입비는 지원이 불가하며, '20년 ~ '22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대상자 및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주거·생활공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23. 2. 13.)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이고,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이다.

사업신청은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2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농촌활성화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은 건축물 건축년도, 거주기간, 운영기간, 안전 및 서비스, 고객편의제공 등을 종합평가하여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민박 71개소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최만식/기자

# 노후한 화천지역 민박들, 깔끔한 이미지로 탈바꿈

화천군이 지역 민박업소들의 노후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3월부터 올해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화천지역에 실거주 중인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자다. 지원규모는 업소 1곳 당 총 사업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80%인 800만원까지다.

선정된 업소는 방수, 도배, 도색, 장판 및 창호, 화장실 리모델링, 간판, 설비조정 등 실내·외 노후 건축물이나

민박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방문객 편의를 위한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구입비 지원은 제한된다.

화천군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후 내달 13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는 최소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폐업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화천지역 농어촌 민박은 모두 206곳으로, 이는 전체 숙박시설

286곳의 7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관광객과 민박객 등 화천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69곳의 민박업소가 지원을 받아 실내·외 시설을 새롭게 단장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농어촌 민박들이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 천안시, “미래의로 산업을 선도하는 강소도시로”

미래의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천안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래의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천안의 입지와 장점을 살린 미래의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미래의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대면 개인 맞춤형 공공의료 복지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주변 의료 인프라와 연계한 미래의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향 설정 및 구상을 위해 7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했다.

천안시 미래의로 산업의 환경 및 여건 분석, 미래의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안)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실행방안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천안시 미래의로 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전, 충북, 충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메디바이오 메가시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은 단국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이 위치해 우수한 전문의료진이 집적돼 있고 11개 대학 및 풍부한 인력을 확보한 의료 신산업 발전 최적지”라며, “천안시가 입지와 장점을 살려 보건·의료 산업을 선도하는 강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의로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충남도, ‘공공기관·육사유치’ 한마음 한뜻 다져

범도민추진위원회, 10일

‘2023년 제1차

실행위원회’ 공동 개최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와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실행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실행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계획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유치 활동 계획, 육군사관학교 유치 활동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올해 국가균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한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4개 기관 유치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전략을 모색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민선

8기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설득 및 전국적 공감대 조성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범도민추진위 관계자는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유치와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해 양 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범도민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 정계, 학계, 도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공공기관 유치,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해 당위성을 안팎에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모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육사 유치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난달 전남·북 지방인 ‘공공기관유치단’을 정부부처사 직속으로 신설해 범도민추진위 지원 등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지역주도 발전” 강조

이 시장, ‘지역주도 발전 통한 지방시대’ 위해 지역 현안 전폭 지원 요청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지방 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전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지방체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화된 협의체로 분기별로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이다.

회의에 앞서 전국 시도지사는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한 후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유치단 설치·운영사항, 과세별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행정안전부)을 의결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지역 여건을 고려, 지방소멸기금 지급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시군구청장협)’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국무조정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안)(시도지사협, 시도회의의장협)에 대

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신속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덕특구 50주년, ‘과학수도 대전 선포식’ 개최 ▲국가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의 대전 설립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도 정부의 초광역지역연합 지원 기조에 맞춰 충청권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원호기자

##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 4년 만에 재개... 프로그램 대대적 혁신

박경귀 시장 “축제 정체성 찾고 품격·위상 높이는 원년 삼을 것”

최근 3년 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성웅 이순신 축제’가 드디어 재개된다.

전문가의 고증을 거친 삼도수군통제사의 의복과 깃발로 무장한 기마대와 기수단의 웅장한 출정식을 신호탄으로, 아산시는 ‘충무공의 도시’로 그 정체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이순신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범국민 축제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응축한 에너지를 한 번에 터트리 만큼 성대하고 품격 있는 축제로 시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성웅 이순신 축제는 1961년 시작된 아산시 대표 축제로, 매년 이순신 장군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해 개최되면서 관광객 및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충무공에서 성장하고 영면해 계신 ‘이순신의 도시’에서 60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지역 축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화된 이순신 축제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아산시는 4년 만에 재개되는 축제를 이전 행사의 반복이 아닌 안된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개월 동안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지난 축제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이 가진 훌륭한 충무공 관련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장군께서 성장하고 영면해 계신 도시임에도 ‘충무공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의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축제는 장군의 위상에 걸맞은 규모와 품

격을 갖춘, 이순신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국방부·육군·해군·공군·해병대 군악·의장대, 전통의장대, 미8군 군악대 등 약 700명에 달하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성웅 이순신 축제에 참여한다.

축제 기간 ‘제1회 아트밸리 아산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함께 열린다. 장군의 후예들이 군악으로 성웅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계승하고 숭상한다는 콘셉트다.

이들은 개막 행사인 이순신 장군 출정식에서 장군의 출정 행렬을 따라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는 한편, 축제 기간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곡교천, 온양온천역 등에서 공연을 펼쳐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박 시장은 “이순신 출정 행렬은 교육적, 사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사 행사로 우리 지역만의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장군의 기마행렬을 따르는 700여 명 군악대의 행진은 그 자체로 4월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콘텐츠로도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장관을 이룰 것”이라 자신했다.

기존 프로그램도 다시 태어난다. 백의종군길 마라톤대회는 고중에 의해 표지석이 세워진 백의종군로를 따라 완전히 새로운 코스로 개발했다.

충무공에서 백의종군하며 걸었던 여정 백의종군길 지나셨던 길을 복원한 ‘백의종군길 전국걷기대회’는 백의종군 중이시던 이순신 장군께서 어머니의 운구를 맞이하신 계마위에서 출발한다.

참가자들은 출발에 앞서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남행길을 떠나

야 했던 장군의 슬픔을 표현하는 공연을 함께 관람한다. 공연을 관람한 뒤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백의종군로를 걷고, 그 끝에 장군의 위패를 모신 현충사에 도착하게 된다.

조선시대 군사들의 복식을 입어볼 수 있는 의복 체험, 나라에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 울리던 봉화를 재해석한 열기구 체험, 조선시대 무관복을 입고 말을 타는 특색있는 승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난중일기를 주제로 한 아산시립합창단의 역사 칸타타 공연, 이순신 판소리 공연,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428 합창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도 축제를 풍성하게 채운다.

박경귀 시장은 “현재 국립국악원과 함께 이순신 장군 찬가도 작곡 중”이라면서 “시기에 맞게 곡이 완성된다면, 국악관련악단이 연주하고, 아산시립합창단과 국악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연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성웅 이순신 축제에는 지역 축제의 하이라이트격인 유명 가수 초청 공연이 없다. 우리는 그 대신 대한민국 불멸의 스타 ‘이순신’을 빼곡하게 채워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흥행보다 이순신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정석이라 믿는다”고 강조하며 “즐거움과 자부심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축제로, 이제라도 축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단행한 과감한 혁신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객 10만명 돌파!

예산군의 대표적 체험형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객 수가 지난해 10월 9일 개통 이후 125일만인 10월 10만명을 돌파했다.

군은 10만 번째 탑승객에게 축하 꽃다발과 무료 탑승권 및 예산사과를 전달하고 방문을 환영하며 축하했다.

예당호 모노레일은 예산군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모노레일은 예당호 출렁다리와 예당호 음악분수, 국민여가캠핑장, 예당호 조각공원 등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치됐으며, 걷기와 불편한 어르신과 유아 동반 단체와 가족 여행객들이 쉽고 편하게 예당호 수변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군은 예당호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높이 70m의 전망대를 비롯해 체험형 농촌체험활동과 예당호를 통한 치유와 휴식을 위한 휴양문화시설 및 숙박시설을 갖춘 ‘착한농촌체험시설’과 수변 무대 공간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반려식물 관련 체험 및 아름다운 경관 조망이 가능한 쉼하우스 조성 등을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당호 모노레일은 야간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관조명 및 미디어아트 등 특색 있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은 관광과 찾아주시 만큼 더 안전한 모노레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청주시 정책 홍보도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가 매체다!

청주시가 10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SNS(누리소통망)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SNS 매체 활용 역량을 높여 온라인 정책 홍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급·중급 과정에 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소통 양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SNS 정책 홍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의 도구로 꼽히고 있다.

이날 직원들은 정책을 알기 쉬운 이미지 콘텐츠로 제작하는 방법, SNS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업무를 계획·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정책을 적기에, 정확하게 알리는 ‘홍보’가 업무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업무 창의력과 소통력을 높이는 SNS 교육 등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진천군, 선진 보육환경 조성 잔거름

진천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맞춤형이 가정에 안정적인 육아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먼저 지난 2020년 개관한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가정양육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 ▲부모교육 ▲보육교직원 상담 등 전문적인 육아·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용 아동의 발달 특성과 놀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은 양육자와 아동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초보 양육자를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 중인 가정양육지원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지역 육아 거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양육자의 긴급한 상황이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이 가능하도록 육아종합센터 포함 총 7개소에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한 곳을 추가해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도 올 하반기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 2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핵가족화 등 약해진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던 진천읍 소재 1호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여성가족부 리모델링 지원 공모 선정으로 4월경 수리를 거쳐 오늘 6월 재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전국적인 저출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내 약 10개소 어린이집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친환경 예코그린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또 어린이집 영아반(0~1세)을 대상으로 약 1천 200만 원을 지원해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진천군은 어린이집 인건비, 보육료, 환경개선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총액 약 345억 원의 영유아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양육자와 아동 모두가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청주시, 시민편의 위해 3개 체육시설 민간위탁 전환

청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했던 3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해 시민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2월 6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월동동 스키시경기장 운영기관은 충북스키시연맹, 용정동 용정축구공원 및 휴암동 흥덕축구공원 운영기관은 청주시축구협회이다.

선정된 기관은 운영방안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롭게 운영된다.

지난 2018년 신축한 국민체육센터 및 스키시경기장(상당구 다리실로 255, 월동동)은 연면적 4,240㎡의 3층 건물로 국제경기가 가능한 공인 스키시경기장 8개와 다용도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연간 약 2억 5천여 만 원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충북스키시연맹은 더 많은 강자를 증설하고 대표급 선수들과 특강 등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에 준공된 용정축구공원(상당구 1순환로 1594번길 42, 용정동)은 축구장 3개면과 풋살장 1개면이 있는 52,417㎡의 공원이다.

2015년 준공된 흥덕축구공원(흥덕구 가포산로 146번길 30, 휴암동)은 축구장 2개면과 풋살장 1개면, 게이트볼장 1개면의 41,124㎡의 공원이다.

2개소의 통합관리로 연간 약 4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청주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전국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축구동호인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이 기여하고자 한다”며 “K리그 2에 입성한 충북청주FC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체육 종목시설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려 한다”며 “종목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관련 민간단체를 활용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고정화기자



# 김광명 부산시의원, '2022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모범적 의정활동 수행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10일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최한 '2022년 지방정부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광명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조례안 25건 발의, 정책제안 13건 등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정책 및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의사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정책제안 및 조례 개정, 지역 중소기업

업체포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광명 의원은 제8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9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더욱 시민을 섬기고 함께 소통하며 시민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사)한국지방정부학회의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2018년부터 제정되어 지방자치 및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

중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2년에는 김광명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을 선정했다.

송종진/기자

# 새마을지도자 밀양시협의회, 전국 시군구협의회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쾌거

새마을지도자 밀양시협의회(회장 이선동)는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전국 시군구 협의회 종합평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에는 매년 전국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직관리와 재정자립, 중점운동, 시도평가 등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에 따른 중점과제를 분야별 지표에 따라 평가해 우수 시도와 시군구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새마을지도자 밀양시협의회는 줄기데이 추진과 생명의 새강살리기 등 25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명운동 추진과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및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읍면동 총무교육과 기금조성활동 등 조직관리와 재정자립에도 실적을 인정받아 경남 최우수상, 전국 우수상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선동 회장은 "한 해 동안 함께 새



마을운동을 위해 봉사하며 노력한 밀양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역을 위해 항

상 봉사의 선봉에 있는 밀양시새마을회 중앙협의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올해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밀양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 정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덕수/기자

# 이선희 경북도의원, 2022 대한민국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 수상

## 지방자치활성화에 대한 공로 인정받아 의정정책비전대상 부문 최우수상 수상



이선희 경북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2월 9일 '2022 대한민국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서 지방자치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사)한국기업기술기평가협회 및 공익기구 모니터코리아에서 평가를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에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12대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진지방의 구현에 앞장섰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힘

썼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경북도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의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경북도민의 혈세가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내실화를 다졌다.

또한 기획재경위원회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소상공인 지원, 신성장산업발굴, 지역특화산업육성, 역외기업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정책 제안 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도정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지난해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스포

츠링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경북도민의 포용적인 교통복지 실현, 범죄피해예방을 통한 지역안전질서 확립, 노인 디지털 교육을 통한 노인복지 확대 등에 앞장 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항상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인데 이런 상을 받아서 매우 영광스럽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도민의 목소리가 지방정부 운영에 잘 반영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GS파워 부천시 취약계층 위해 1억원 통 큰 기부

## 지난 1월 100℃ 조기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 16.6도℃ 상승 기여

부천시는 GS파워 주식회사에서 부천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억원을 기탁해 지난 9일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GS파워는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집단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내 복지기관 지원, 기부, 문화체육 산업 후원 등 지역사회에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GS파워의 기부로 시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종료(1월 31일)를 4일 앞두고 나눔 목표액 6억원(나눔 온도 100℃) 조기 달성에 성공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GS파워 조효제 사장, 전영욱 인사·대의협력 부문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조효제 GS파워 대표이사는 "사랑의 온도탑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얼어붙은 현 시국에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효제 부천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 큰 기부를 해주는 GS파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성금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시의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 '경북 울진군 - 부산 동구청' 자매도시간 품앗이 기부

울진군은 자매도시인 부산 동구청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교류도시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상호 품앗이 기부를 실시했다.

울진군과 부산 동구는 2008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친선을 유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고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이며, 온라인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과 오프라인(전국NH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 16.5%)



와 함께 기부 금액 30%한도의 담례 품 혜택이 주어진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

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부로 양 도시의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2023년 첫 우수 자원봉사왕 시상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섯글자 '자원봉사자'

김제시 자원봉사센터는 2023년 첫 우수 자원봉사왕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왕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및 학습지도 봉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 사회 발전 및 안녕한 김제 만들기 기여한 지성권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했다.

지성권 자원봉사자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 더욱 보람차고 뜻깊은 1월을 보낼 수 있었다"며 "우수 자원봉사왕이라는 상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도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관내 시민들을 위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수 자원봉사왕 시상식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중 매월 활동 시간 최상위 자원봉사자 한 명을 '이달의 우수 자원봉사왕'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2년째 진행되고 있다.

김현태/기자



# 김산 무안군수,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10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김산 군수는 자매도시인 의령군과 인근 도시인 목포시, 영암군, 신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함으로써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기부 챌린지는 이탄희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오테왈 의령군수 순으로 진행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인 의령군 오테왈 군수의 응원 챌린지를 이어받았으며 목포시, 영암군, 신안군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며 릴레이 동참을 권유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공제)혜택과 기부금의 30%상당의 담례품이 주어진다.

무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담례품은 무안사랑상품권, 농산물꾸러미, 한우, 한돈, 쌀, 김, 양파음료, 양파즙, 양배추즙, 고구마, 마늘, 회산백련지야영장 사이트, 무안항토갯벌랜드 캠핑장 사이트로 구성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군간 상생 협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매결연 도시와 인근 도시의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광남/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산업현장은 노동절벽, 국가차원 산업인력지원 기구 만들어야”

박 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경남현안과 지방권한이양에 목소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인력 등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종합토론을 통해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어 박 도지사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어오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의 재정, 기구, 인력 등이 반드시 함께 이양되어야 한다”며 “지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넘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이양과제로 지역인재육성을 대학지원,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등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의대가 아직 없는가 하면, 경남에는 로스쿨, 과학기술원도 없는 실정”이라며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이날 협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

도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있었다.

특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경남이 주도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도시농업 공공성 인정협의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협력회의 안건 이외에도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비롯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양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경과보고가 추가로 있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대한민국시·도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지방정부의 기능, 재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했다. 협력회의 이후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을 비롯한

영남권의 공동발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재현기자

## 안성시, 반도체 허브 도시로 우뚝 선다

2023년 언론브리핑 개최...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인력양성센터 구축 총력

안성시가 9일,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맞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과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전략과 농축산업 정책, 도시이미지 개선 등 민선 8기 비전인 '시민중심·시민이력'을 가속화 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공모에 참여했고, 반도체 포럼과 기업인 간담회, 자문단 구성, 지역대학 MOU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호수관광·지역축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스마트팜·특화작물·축산냄새 저감), ▶도시이미지 개선 및 여가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김보라 시장은 “안성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을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며, “관내 기업, 대학과 함께 소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앞장서는 한편, 반



도체 인력양성센터를 조속히 구축해 안성시가 K-반도체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은 평택, 용인 등 인근 반도체 단지와 인접하고, 주요 도로를 통한 광역 접근성과 근로자 정주 여건 등 뛰어난 입지 환경을 갖췄다”며, “반도체산업 육성을 소부장 공급의 안정성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올해 안성시 사자성어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인 물신희기(勿失好機)로 시민들과 손잡고 새로운 안성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영기자

## 충북농기원, '매립형 다목적 관수시스템' 산업화에 박차

관수 노동력 90% 절감  
특허기술, 산업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3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매립형 다목적 관수 시스템' 기술을 스마트팜 농자재 전문생산 업체와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상 실시한 농업회사법인(주)영농과학(대표 송윤화)은 '회전형 수직 다단배기' 특허기술을 기술원으로부터 이전받아 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 스마트팜 농자재 전문생산 업체이다.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해제하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물 관리 자동화로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매립형 다목적 관수시스템' 기술은 물 호스를 1m 이상 땅속에 매립하여 트랙터 농작업 시 파손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토양수분센서가 장착된 관수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물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다.

대형 관수장치 1대의 직경이 50cm에 달해 500~600평의 면적이 물 주기가 가능하며, 지점별로 토양수분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관수량과 관수 시간이 자동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노동력

및 농업용수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관수 노즐은 원터치식으로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뭄이 빠르면 대응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관리비가 적게 든다.

김기현 특장팀장은 “이번 특허기술은 2024년 농진청 전국 시범사업 선정을 목표로 산업화 기반을 사전에 구축하여, 농가에 신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약이었다”라며, “본 사업 추진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전남도, 교육·산업계와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맞손

세계 최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선점 나서



전라남도가 레이저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이자 호남권 유일의 국가 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도정 역량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내 레이저계의 숙원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도는 9일 도청에서 7개 대학교와 광학·레이저 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중장기 레이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이장호 군산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김종록 한동대 부총장, 김동근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인력 교류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 및 국가사업 공동 건의 ▲장비 및 연구정보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내 광학·레이저 산업계는 고

급 숙련 인력 부족으로 해외 경쟁력이 저하돼 레이저 인력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레이저는 반도체·우주항공·에너지 등 모든 첨단산업의 필수 요소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관련 석·박사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은 전국 15개 정도로 배출 인력도 연간 70여명에 불과하다.

전문 인력 부족은 원천기술 확보가 핵심인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광학·레이저 관련 기업은 2천여 개가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또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0% 이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핵심 부품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원천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급·숙련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 산업계와 손잡고 다각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석·박사 통합과정 등 커리큘럼 및 연구시설을 공유하는 한편, 설계·제조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되도록 맞춤형 연대 실습교육도 강화한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국 공모를 앞두고 전남도의 선제적인 준비 노력과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힘으로써 공모 심사에도 큰 가점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4월 부지 초기 공모가 시급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반드시 유치해 레이저 기초 연구와 첨단기술의 사관학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과기부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부지 공모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폭적 지지를 얻어내는 한편 초광역·초당적 협력과 범국민적 불조성 등 차질 없이 준비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할 계획이다.

정해영기자

##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에 발맞춰서 약진하는 하이드로월드

탄소 제로화에 도전, 수전해 수소의 대명사 하던 (주)하이드로월드(대표 이사 김순진)가 먼저 떠올릴 수 있다. 하이드로월드는 2023년 올초 인도의 Green dot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인도 정부의 조달본부인 Agrifed와 트랙터와 수중펌프 등에 사용되는 연간 1억불 규모의 수소 발생장치의 공급계약을 맺는 등 신에너지 발전 사업을 키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중국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길림천우건설그룹(회장 전규상)과 수소전기발전장치 3만대 공급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도 만들어졌다. 인구 15억 명을 넘어가는 두 개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를 향해 기지개를 폈다. 길림천우건설그룹의 전규상 회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하이드로월드를 먼저 방문

해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동반자(하이드로월드)와 친목을 도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길림성 지역은 옥수수 주요 산지로도 유명하다. 하이드로월드와 길림천우그룹은 길림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를 이용해 생분해성 컵을 만들어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기존의 종이컵은 안쪽에 코팅된 폴리에틸렌에서 뽑아져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는 대형마트에서도 종이컵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생분해성으로 만들어지는 친환경 제품들은 종이컵 외에도 1회용 빨대나 식탁 위의 식탁보를 포함해 컵라면의 컵이나 짜장면 그릇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배달업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생분해성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드로월드가 생산하는 수소발효 흑삼은 수소발효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하이드로월드가 가지고 있는 수소발효 기술은 발포 기술과 함께 옥수수나 쌀겨기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생분해성 용기 등을 만들어내는 데에

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발포 기술에 의해 생분해성의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컵은 뜨거운 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를 생분해성 컵에 담더라도 뜨겁다는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종이로 만들어지는 종이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는데 종이컵의 안쪽에는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뿜어나오는 미세먼지는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뜨거운 커피나 차가운 열음은 이중 종이컵이나 컵 홀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발포기술에 의해 생분해성의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컵은 열 전달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비사용면에서도 더 저렴하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이로써 앞으로 수소발효 기술과 발포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생분해성 제품들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하이드로월드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에 발맞춰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만식기자





# “인구가 봉화의 미래다” 봉화군 인구 3만 명 지키기 본격시동!

인구유치 기반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나서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1월 2일 신년사에서 “인구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가능 하는 시금석으로 과거 인구 12만명을 자랑하던 군이 지금 인구 3만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군정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듯이, 민선 8기 봉화군 인구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8기 봉화군 인구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잘 알다시피, 수도권과 지방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은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는 봉화군도 예외는 아니다. 봉화군의 1966년 인구조사를 살펴보면, 1966년 119,644명...1980년 97,495명, 1985년 78,537명...1990년 59,159...2000년 42,865명, 2005년 36,599명...2020년 31,494명의 농업도시였지만 저출산·고령화와 꾸준한 인구 유출로 2022 12월 3만139명, 올해 KOSIS(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1월말 기준 30,096으로 인구 3만대 벽 붕괴직전 위기에 봉착해 있다.

더군다나, 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곳 중 하나로, 지역 내 인구조멸 위기를 알 수 있는 국토조사보고서의 인구과소지역 지표에서도 약 50%로 전국 시·군·구 증가가 높은 실정에 있다.

이에따라 봉화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봉화군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세우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지 취재진은 인구소멸의 심대한 위기에 처한 봉화군이 인구감소를 벗어나 살기 좋은 봉화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내어 놓은 봉화군 인구정책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봉화군의 인구 소멸 위기를 위해 내어놓은 특단의 대책은 ▲봉화사랑! 주소를 지키기 운동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신규 전입주택단지 조성 등 인구 유치 인프라 확충 ▲전입지원금 지원, 기업승계농 정착지원 등 인구 유입 신규시책 지원이다.

### ▲ 주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봉화사랑! 주소지 지키기 운동 추진

먼저 군은 그간 부재했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해 인구정책 총괄부서인 인구전략과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는 종전까지 개별·단발적으로 추진하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인구전략과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인구종합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1월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군 인구시책 홍보를 통한 범군민적 인구 늘리기 참여 유도에 적극 나섰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3일, 소천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봉화군 인구정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봉화군 인구현황에 대한 설명과 주요정책을 홍보하여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인구 늘리기의 범군민적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실제 봉화에 거주하는 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봉화사랑 주소지 지키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에 거주하는 숨은 인구를 찾아 전입을 유도해 봉화군 인구 3만 지키기 운동에 대해 홍보하며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에도 관내 각종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꾸준히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인구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봉화군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해 132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 분천산타마를 킬링콘텐츠 조성사업, 백두대간 펫빌리지 조성사업 등 현재 8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관광 육성 등 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향후 8년간 약 800억 규모의 인구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과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사업 등 인구 유치 마중물 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형 작은 정원 사업은 도시민을 위한 휴식·여가·농촌체험 복합공간을 조성해 체류 및 생활 인구를 확보하는



▲봉화사랑 주소지 지키기 홍보 캠페인



▲인구정책 설명회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두지역 살기 기반조성



▲태마전원주택단지 조감도

‘체류형 야외정원’ 사업으로 특히, 경북도가 지역 활성화와 인구활력을 도모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봉화군은 ‘봉화에서 즐기는 웰니스 정원, MushroomLand’라는 테마로 몰아붙여 복지리 일원에 약 2만5천㎡ 부지에 44억 원을 투입해 도시민 수요에 맞춘 15종의 개별체류시설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주말농장,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커뮤니티센터, 지역특색을 살린 버섯재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 공모사업은 경북도가 제2생활거점 마를을 희망하는 신중년 도시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없는 살아가기 공간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봉화군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세컨하우스-너나들이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소천면 분천리에 모듈러 주택 10동 규모의 주거 시설 및 생활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예비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위한 정주환경을 개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리모델링 해 관내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 귀촌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민 인구 유치 기반을 확충해 갈 예정이다.

### ▲ 부족한 신규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최근 5년 동안 인구 순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봉화군은 영주, 안동, 예천 인접 3개 시군으로 순유출이 9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등 정주여건을 이유로 영주시로의 인구 순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봉화군은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지원 혁명에 적극 나섰다. 현재 봉화를 삼거리와 몰아붙여 복지리, 춘양면 소리로·도심리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216억 원을 투입해 125호 물량의 신규 전입주택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특히 복지리는 작은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시민 체류형 농촌체험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로지구 전입주택단지는 올해 준공 및 분양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삼계·도심리구는 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봉화군 유희부지인 봉화읍 내성리 구 워터파크 부지(사업부지 6,325㎡)를 활용해 최대 150세대의 신규 민영공동주택을 유치해 지역의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 ▲ 전입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지원금 지원, 기업승계농 정착지원 등 인구 증가 신규시책 지원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지원도 올해 상반기 중 제도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타 시군구에서 봉화군으로 전입한 주민에게는 3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전입 즉시 10만 원, 1년 경과 시 20만 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동별 인구증가 실적에 따라 반기별 3개 이동을 선정해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 19세에서 49세 청년 전입자에게 3년간 360만 원의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고,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가업승계청년에게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가업승계청년 정착지원제를 도입해 지역 출신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출산육아지원금의 경우 지원기준을 완화해 출산 예정자와 5세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세대의 전입을 유도하는 출산·보육·돌봄으로 가계부담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봉화군은 단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추세를 완화해 인구 3만 명을 유지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기반 확립을 통한 정주민구 3만 3천 명 회복과 생활인구 3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올해는 우선 인구 3만 명을 지키는데 군정 방향을 집중하고, 향후 우리 군 인구 늘리기의 토대를 다지는 데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즉각 수렴하여 군 인구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행복 봉화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구감소는 비단 봉화군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과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계속 이어지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5,100만 명이던 인구가 49년후인 2070년에는 3,800만명, 2,700년대에는 1,700만명으로 줄어들어 결국, 이 땅에서 대한민국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이와같이 이곳 봉화군도 인구 12만명 가깝던 인구가 8만9천여 명이 줄어들어 57년만에 인구 3만대 벽이 허물어지기 직전에 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인구 3만대 벽을 유지하기 위해선 봉화군정이 추진하는 인구 증가책에 너나할 것 없이 군민적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소중한 덕목이다. 한명이라도 더 봉화군에 한 소를 두고, 출산장려운동으로 한 사람의 신생아라도 더 늘어 날 수 있도록 출산·보육·돌봄의 안전돌봄 3대 패키지를 적극 펼쳐, 봉화군의 인구 3만대벽 유지는 물론, 그 이상의 인구증가를 위한 결과물이 현실화 돼야. 봉화군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아 갈 수 있으리라.....

윤근수/기자





# 경주시, 불법 기선권현망어선에 강력 대응 나서

### 7일 불법 조업어선 50여 척 발견해 물리적 퇴거 조치

경주시는 남단 도계(경북도와 울산의 경계) 이북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선의 월선 불법조업이 빈번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섰다.

기선권현망은 대형 그물을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끌면서 멸치를 자루그물로 유도한 뒤 어획하는 어법이다.

시는 지난 7일 새벽 경주시 남단 도계 107도 이북해역의 멸치어군을 따라 조업하는 기선권현망 50여 척을 발견해 해수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물리적인 퇴거 조치를 시켰다.

이어 불응하는 1선단(4척)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근해어업(기선권현망어선) 조업구역을 위반한 자는 수산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매년 같은 시기에 멸치어군이 지역 해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문무대양호를 도계에 상주시켜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과 공조 하에 불법



▲ 7일 새벽 남단 도계 이북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경주시 문무대양호가 단속하고 있다.

어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기선권현망 수협을 비롯해 경남도 등 소속 지자체에 조업구역 및 관련법령 준수를 요청하는 등 불법조업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4월 1일~6월 30일) 전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 전북도,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 단속...14건 적발

###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 2차 병원 68개소, 7주간 단속

전북도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을 점검해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7주간 6개 시·군(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 2차 병원(병상수 30 ~ 500) 6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의료기관의 3차(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 용기 사용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장소 소독 여부, 변경신고 이행 여부,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이었다.

이에 도는 의료폐기물 운영·관리기준 위반, 전용 용기 사용개시 연월일 미기재 및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 주사바늘·한방침 등 의료폐기물 적법 보관기간 위반 등 14건을 확인했다.

적발 사항 중 운영·관리기준 위반 사항은 조치명령 및 과태료 행정처



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불법 의료기관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해당 시·군에 안내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체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인

로 실시해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목재생산, 수입·유통업체, 불법 적발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

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 목포시,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 9일부터 불법주정차, 택시 호객행위 단속, 이용객 편의 도모

목포시가 9일부터 불법주정차와 택시 호객행위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최근, 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태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택시 호객행위·목포역 버스정류장 주정차·버스터미널 앞 이중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호객행위 위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에 10일(3차 시 20일)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호객행위로 1년간 3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



소된다.

시 관계자는 "호객행위 단속 및 행정 계도를 통해 시 이미지를 높이고, 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 위대한 시민·새로운 안동

## 봉산개도 우수가교 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난관이 있어도 굳은 의지로 극복하겠습니다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 영조가6대조 할머니께 올린 왕실의 공예품...서울공예박물관, 첫 소장품 연구도서 발간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품을 '공예사'의 시각으로 풀어낸 '소장품 탐구 시리즈' 발간

서울시 서울공예박물관은 대표 소장품을 주제로 공예품이 제작된 시대 배경과 재료·도구·장인 등 공예사적 양상을 연구하여 쉽게 풀어낸 소장품 탐구 시리즈 제1권 '경혜인빈 상시호 죽책'을 발간했다.

'경혜인빈 상시호 죽책(敬惠仁嬪上時號 諭號竹冊)'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가 1755년(영조 31년)에 선조의 후궁이자 자신의 직계 6대조 할머니 인빈 김씨의 생전 업적을 기리고자 '경혜(敬惠)'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왕실 '의례 공예품'이다.

시호(諡號)는 왕이나 왕후 등, 왕실의 구성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 후대 왕이 그 덕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올리던 이름을 말한다. 왕실 구성원 외에도 공신, 고위관료, 학자 등의 사망 시에도 국가에서 시호를 내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경혜인빈 상시호 죽책(敬惠仁嬪上時號 諭號竹冊)'은 당대 장인의 정교한 솜씨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향후 보물 지정 및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실 어보와 어책'에 추가 등재를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이므로 소장품탐구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 이번 도서에는 유물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왕실 의례에 사용된 공예품의 역할과 이를 만든 제작자, 재료·도구 등 당대의 공예 기술에 얽힌 이야기를 담았다.

조선 왕실 권위의 상징, 어책, '경혜인빈 상시호 죽책'의 제작 배경, '경혜인빈 상시호 죽책' 살펴보기, '경혜인빈 상시호 죽책' 자세히 보기의 총 4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각 장의 내용을 심화적으로 다룬 분야별 전문가의 논고 3편도 함께 수록했다.

1장에서는 죽책과 같이 서책의 형태로 만든 왕실 의례 공예품인 어책(御冊)의 유래와 현황을 다루고 있다. 어책은 왕실 구성원의 직위를 임명할 때, 또는 업적을 높이 기리는 이름을 수여할 때 글을 지어 새긴 공예품이다. 이를 만든 재료에 따라 옥책(玉冊), 죽책(竹冊), 교명(敎命) 등으로 구분한다. 어책 중 죽책은 현재까지 총 43건의 실물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경혜인빈 상시호 죽책'은 현재 전해지는 후궁의 시호 죽책 중 가장 오래된 유물로서 중요도가 높다.

2장에서는 영조가 1755년(영조 31) 인빈 김씨에게 시호를 올린 배경과 그 과정을 사료를 통해 생생하게 살

펴볼 수 있다. 인빈 김씨는 선조의 후궁이자 인조의 할머니로서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이어진 조선 왕실 계보의 가장 큰 어머니이다. 1755년(영조 31) 영조는 후궁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조선 왕실의 상징적인 인물인 인빈 김씨에게 시호를 올려 지위를 높였다. 동시에 업적과 인품을 기록한 죽책과 시호를 새긴 은인(銀印)을 제작하여 사당 내에 안치했다.

3장에서는 죽책과 그 구성품인 격유보(隔襦褙)·책갑(冊匣)의 현재 모습을 의례 기록과 비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경혜인빈 상시호 죽책'은 이를 보관할 때 사이마다 끼워 완충재 역할을 한 솜보자기인 격유보, 죽책을 감싸 보관하는 책갑과 함께 전해진다. 이들 공예품의 양식은 '경혜인빈상시호 봉원도감의궤'에 기록된 도설과 일치하며, 국가 의례에 검약을 강조했던 영조 대 공예품의 제작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4장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지닌 장인들이 전국에서 수급한 좋은 품질의 재료로 죽책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그 공예사적 의미를 밝혔다.



1755년(영조 31) 인빈 김씨의 시호를 올리는 의례를 준비하기 위해 책인조성소(冊印造成所)에 소속된 50여명의 다양한 공예 기술을 지닌 장인이 죽책 제작을 전담했다.

전국 각지에서 좋은 품질의 재료를 선별하여 중앙으로 올리면 대나무를 쪼개어 죽간을 제작하는 사립장(斜笠匠), 그 위에 칠을 올리는 가칠장(假漆匠), 글씨를 베끼고 새긴 사자관(寫字官)과 각수(刻手), 죽간 위아래 금속 장식을 만든 두석장(豆錫匠) 등 여러 장인이 협업하여 죽책을 완성했다.

그동안 죽책은 새겨진 글의 양식과 사상적 의미와 관련하여 주로 한문학

과 서지학의 관점에서 연구됐다. 이번 서울공예박물관의 소장품 탐구 시리즈 제1권 '경혜인빈 상시호 죽책'은 이를 공예사의 연구 대상으로 인식하여 재료 수급과 제작 공정, 장인 등 당시 공예 기술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했다. 특히 영조대 최고 기술자로서 현장에서 죽책의 제작 공정을 감독한 별간역(別看役) 변이진(卞爾珍), 47년간 활동한 영조대 대표 각수인 김수해(金壽海), 36년 동안 19번의 의례

에 참여한 사립장 김세위(金世緯) 등 장인 개인의 행적에 주목하여 이들이 왕실 의례의 숨은 주역으로 활약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연구도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작한 소책자(미니북)도 함께 발간한다. 소책자(미니북)는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7×7cm)로 사진 및 일러스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도서에 비해 간편하게 읽을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상설전시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에 진열된 죽책 유물 앞에서 소책자(미니북)를 펼쳐보면서 관람하는 것도 하나의 묘미이다.

'경혜인빈 상시호 죽책'은 서울시내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공예박물관 뮤지엄숍과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이 책에 담긴 조선 후기 왕실 공예품을 둘러싼 사회상과 유물에 함축된 이야기를 보며 좀 더 풍부하게 공예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공예박물관의 소장품탐구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발간될 예정이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광수/기자

# 대구시, 2023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문화예술교육 8개 공모사업 59개 단체 및 기관 선발 예정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23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수) 오후 2시 엑스코 306호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문예진흥원은 올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으로 총 8개사업 약 12억원, 총 59개 단체를 선발 한다.

이 사업은 '지역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구' 비전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교과연계형(예술공학교)/지역특화형(▶꿈다락토요 문화학교, 지역특화문화예술교육/▶예술로놀자)/기관협력형(문화예술교육사현장역량강화 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파출소)/연구개발형(예술교육랩) 총 4개분야이다.

이를 통해 유아~노년층까지의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 나아가 대구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대구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지역화·다양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문예진흥원은 현장 의견을 수렴, 지난해 10

월,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한편, 4회에 걸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 지역 교육계, 학계, 유관기관부터 실제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으로 올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이뤄 모니터링 평가, 폐지, 사업비 집행 조건 완화 등 행정 간소화로 현장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사 우대조건을 강화하고 신규 기획사업 개발 등 신규단체/청년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진입조건을 완화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기획 사업인 '예술로 놀자'의 경우 '방문형(아동센터, 노인지원시설, 장애

로 해당 지역 내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예술로 놀자'를 비롯, 분야별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과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신청 방법/신청서식 작성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설명회가 끝난 후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 현장에서 저작권 및 관련 법률에 대한 1:1 상담도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파견한 저작권 전문가 및 변호사가 현장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는 개인을 비롯해 단체 및 기관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에 참석 못한 단체 및 기관을 위해 공모기간 동안 1:1 맞춤 컨설팅도 진행한다.

문예진흥원/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dgarte.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후 이메일(dgarte@dgfc.or.kr) 접수하며, 기실당은 해당 사업 담당자와 유선 or 이메일로 진행하



고,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신청은 2.14~28일까지 진행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ocas.or.kr)'로 접수하며, 기타 문화예술교육센터(053-430-1282~4.1293)로 문의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 '포항의 문화적 농도를 탐구하다' 문화 매거진 PH 5호 발간

### 'connect'를 주제로 포항에서 펼쳐지고 있는 삶과 문화의 장...인터뷰, 리포트 등 소개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문화도시 포항의 브랜드 확산을 위해 발행 중인 문화 매거진 PH 5호가 발간됐다.

문화 매거진 'PH'는 '포항의 문화적 농도를 탐구하다'라는 편집 방향을 토대로 포항의 문화적 일상과 공간, 인물, 이슈 등의 이야기를 취재 및 인터뷰로 구성해 매년 두 차례 제작 발간하는 매거진이다.

이번 호에서는 'connect'를 주제로 문화도시 포항이 예술과 사람, 도시와 자연, 현재와 과거의 문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완성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아름다운 포항의 바다와 유구한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골목과 거리 곳곳에 대한 장면과 예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 서사가 펼쳐지고 있는 운하에

관한 이야기, '대안공간 298', '문화검침원', '회야회(회의아닌회의)' 등 포항 문화의 장을 이루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와 리포트를 소개하고 있다.

포항의 식(喰)문화를 다루는 칼럼에서는 공지를 주제로 인문학적 관점의 서사와 함께 포항의 대표 음식문화를 보여주는 공지 음식을 소개하며, 법정 문화도시로서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랜드마리온에트 아시아 거점 구축사업'의 준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담긴 칼럼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이번 호의 주제를 담아 결합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경신원 도시학자의 칼럼, 포항의 삶의 깊이를 드러내는 최소희 동화 작가의 에세이, 이재영 포스텍 교수의 포항 이야기를 담은 리포트, 옛 추억과 현재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송도의 골목 이야기와 포항 옛 고서에서 발견한 포항의 옛 삶의 모습을 담은 칼럼 등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5호 문화 매거진 'PH'는 전국의 주요 문화기관과 공공시설에 비치되며, 정기구독 신청이나 문의는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윤태용/기자



# 봉화군 물야저수지 3색 힐링의 옷을 입다!

- 그저 흐란 저수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다!**  
일반 저수지에서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V로드 조성사업)을 통해 총 3개 구간에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담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합니다.
- 물야 오전리, 『娛(즐거울 오) 廬(터 전)』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로 거듭나다!**  
오전리는 보부상이라는 역사적인 가치와 매력에 충만한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V로드에서부터 오전약수관광지까지 봉화 보부상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친환경 힐링도시 '봉화군'!**  
오전약수관광지를 비롯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중 하나로서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사업(V로드)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www.bonghwa.go.kr



## [덕암칼럼] 복 받은 나라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나누는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다. 주지도 않으면서 받으라는 인사말이 어찌가 있으나 가만 있는 사람에게 딱이 저절로 오지는 않으니 잡으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맞는 것이기에 필자는 새해 복 많이 잡으시라는 말로 인사를 건넸다. 기왕이면 꼭 잡으시라 했다.

하다못해 로또도 구입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사지도 않고 대박을 부르짖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치다. 그래서일까 월요일부터 조용하던 로또 판매점이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부터 길게 줄을 서는 장사진을 볼 수 있다. 매주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네 복권이 지난 4일에는 1등 당첨금이 40억 9천 만원이었다.

한방에 거액을 잡을 수 있는 로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과연 당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복권수익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되는 복권위원회는 로또 외에도 연금복권, 스피도, 인터넷복권 등 합법적인 도박을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막대한 수익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는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을 위한다고 하니 도박의 중독성을 끊지 못하는 국민들만 줄을 서는 것이다. 814만 5,060분의 1 확률이라는 희박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복 타령은 이쯤하고 왜 대한민국이 복 받은 나라인가라는 점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므로 고마움을 자각하고 또 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전제한다.

일단 국제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이다 보니 누가 감히 선제공격에 대한 엄두를 내지못한다. 자칫 제3차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에 강대국들의 부추김만 없으면 현재의 평화는 그냥저냥 잘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고로 평화란 원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그동안 몽골, 중국, 일본 등 한반도가 들들 볶았던 과거의 침략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오는 7월 27일이면 6.25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이하니 1953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는 총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살아왔다. 간혹 사소한 충돌은 있었지만 소위 전쟁이라는 난리 통은 없었다.

전쟁 발발 1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자사 현황을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다. 러시아 청년들이 징집을 피해 인근 국가로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폐하고 험난한 일상은 전쟁이 인류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실시간 영화처럼 보여준다. 과연 한반도라고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

지난 8일 북한의 김군철 75주년 열병식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구호가 무색함을 보여주는 단면을 보여줬다. 이번 야간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과 화성-17형 등 핵무기들이 동원되었으며 김일성 광장은 붉은 깃발과 북한 주민들의 환호성으로 지축을 뒤흔들었다. 열병식은 북한 말고도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식행사다.

한국에서도 국군의 날 열병식을 하지만 북한처럼 야간에 치르는 예는 없었다. 이쯤하고 재앙은 전쟁 말고도 자연재해가 더 두려운 것이다. 현재 튀르키예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세계 보건기구에는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10만 명이 넘을 가능성도 추정했다.

도시 기반시설 중 전기, 수도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중단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도 떨어지는 일명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국제사회의 구조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인구 8,600만 명에 과거 터키로 불린 튀르키예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해 총 3천 3백 49명이 희생된 기록을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 순서로 많은 717명의 전사자, 2천 2백 46명의 부상자, 167명의 행방불명자, 219명의 포로가 발생한 국가다. 세계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 반대편에서 낯선 전쟁터로 파병된 젊은 군인들의 희생은 대가로 얻은 자유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당연히 이번 천재지변에 최대한 구호물자와 구조단을 파견해야 한다.

어려울 때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2010년 1월 13일에는 아이티 지진으로 전체 국민 900만 명 중 3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사망자도 22만 명에 부상자도 30만 명이 넘었다. 엄청난 데 달친 격일까. 2021년 8월 14일에도 2차 아이티지진으로 1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복 받은 나라라고 전제할 대목이 공감가지 않을까. 다만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일단 국민이 살아남아야 애국을 하든, 애국을 하든 뭐라도 할 것 아닌가. 자연재해야 피할 수 없지만 전쟁은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죽나 한판 붙어보자는 식의 ‘결사항전’이란 적과의 교전에서 최후의 보루에 몰렸을 때 죽을 결심으로 전쟁에 임한다는 뜻인데,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 ‘선제타격’이란 말도 상대가 치기 전에 미리 친다는 것인데, 작은 오발사고로도 충분히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매우 위험한 단어다.

실령 제3국이 전쟁을 부추기더라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 일국의 지도자가 해야 할 말이다. 군대도 안 가본 대통령이 일개 사병보다 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다면 이는 측근들의 보좌가 부족한 탓이다. 북한의 야간 열병식을 남한에서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남한은 강제적인 열병보다 자발적인 집회가 더 자주 이뤄지고 그 목적 또한 국가를 위한다기보다는 특정 정치인이나 단체, 또는 이념 대립으로 이어진다. 적어도 있는 복을 차지는 말아야 한다. 이러라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선조들이 애를 썼던가.

이러려고 최루탄 가스에 시달리면서도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국가를 선포했던가. 자고로 자유의 진정한 가치는 현 세대의 확고한 주권 의식이 바로 서야 지켜지는 것이며,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경우 전쟁이나 자연재해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 (박근중 칼럼)

### 근로 의욕 꺾는 실업급여 구멍, 획기적 개선 실기해선 안 돼



박근중 작가·칼럼니스트(현, 서울시자치공공단이사장연말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전, 소방준장,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중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0일 실업급여 수급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기반이 터전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 행복과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이다. 그러나 저성장이 고착화(固化)하고 산업-인구구조가 대전환(大轉換)하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우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혁신, 투자 확대 등 경제산업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질 개선이 필요한데도, 그간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적인 단방처방(單方處方)으로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오는 데만 급급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또한, 고용률의 총량적 목표에만 머물러 전체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선진국과의 고용격차는 여전하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도 노동시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개혁과 함께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고용노동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성장 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실업급여와 저임금 노동자의 EITC(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등 공공 지원 축소에 초점을 맞춘 5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5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요 내용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의 경력단절 사전 예방, 고령자의 계속 고용 기반 조성,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 체계 구축(고용둔화 선제 대응, 고용 위기 조기 포착시스템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직능수준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 업종·지역·기업별 빈 일자리 특별관리,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근로빈곤층의 근로자 도약 지원, 일자리로의 액티베이션(Activation) 강화, 촘촘한 고용안정망 강화), △질적 개선을 통한 혁신

신성장 지원(일자리 사업의 균형 회복,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확충, 법·제도·문화 혁신)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실업급여 의존을 막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의 문턱을 높여 실업급여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고용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편입시켜 적극적 구직 노력을 부과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대신 구직자들에게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막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킬 것다는 구상도 당연히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산업의 이중구조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치 실업이 ‘구직자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인 양 몰아가서는 매우 위험하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의 열악한 노동 여건이다.

정부의 고용정책 변화가 현장에서 ‘아무 데나 일단 취업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업 촉진’ 정책을 통해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률을 2021년보다 2027년까지 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여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고용률 목표 달성에만 매달릴 경우, 노동 취약계층이 열악한 일자리만 전전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저임금 노동자 예비군을 양성하겠다는 의도라면 대단히 구시대적인 발상과 행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1월 29일 발표한 서비스 중심성도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뜯어고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핵심은 고용 복지+센터(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구직자 역량 강화,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한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다. 최소한으로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2년 기준 하루 6만 120원이라 매달 180만 원 이상 받는다.

올해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 7,040원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에 1번 이상 면접을 보거나 구직 프로그램 이수하는 등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취업할 의지 없이 면접만 보거나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는 식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2017년에 비해 32%나 오르면서 액수의 차

이가 확 줄었다. 직장을 나가 교통비, 점심값, 그리고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타 먹는 게 훨씬 낫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어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을 채운 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 먹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겠다고 한다. 다소 늦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옳은 방향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추이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도에도 163만 명 수준이다.

5년 사이에 무려 40%가량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세 번 이상 받은 이른바 ‘메뚜기 실직자’가 무려 10만 명이 훌쩍 넘고, 이들이 받은 돈만 5,000억 원에 이른다니 심각하다 못해 개탄스러워 일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조 원 이상 쌓여있던 고용보험 재정이 거의 바닥 상태에 이른 것은 이처럼 제도의 허점과 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기어 갈려 복합적으로 상승 작용한 결과다.

고질적인 ‘실업급여 상승 수급’은 적자에 빠진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직전 5년 이내에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 7만 7,000명에서 2021년 기준 10만 1,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들이 받은 금액은 같은 기간 2,180억 원에서 4,990억 원으로 2.32배가 넘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반복 수급자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지급액을 최대 50% 줄이고, 급여 수령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이것이 잦은 일용직 등 취약계층은 예외로 뒀다.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별다른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하다. 구직 노력을 기울여주는 ‘실업급여 중독자’를 양성하는 비정상적인 제도는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는 경우 청년 등 실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정부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오는 6월 실업급여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행스럽긴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생긴 잦은 이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수급 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속도 내기 위해선 정치권, 노동계의 동참이 수반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고용안정보험료징수법」 개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실업자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고 고용보험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대수술은 실기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 10만원 기부하시면

#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답례품)



##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답례품 :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 ♥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 :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 문의 :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